

April
2011. 4

ISSUE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분석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 기업탐방 (주)ADM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1년 4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 집 위 원 장 권희태 · 성태규

편 집 위 원 윤호익, 임재영, 고석철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임형빈, 김윤아

경제일지 김석필, 박용진, 김범수

외 부 집 필 진 정운성(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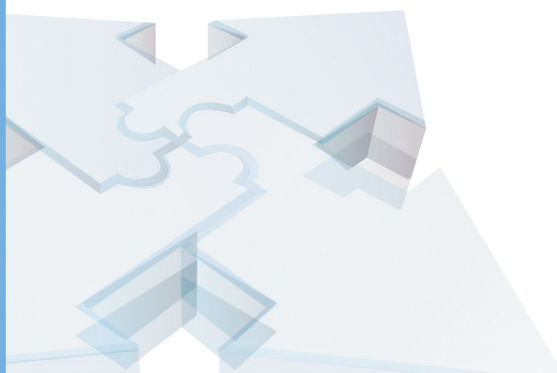
CONTENTS

ISSUE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분석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3 11
기업탐방	(주)ADM	21
경제동향	경제동향 (요약) 1. 경기 2. 산업활동 3. 소비 · 물가 4. 수출입 5. 고용 6. 금융 7. 건설 · 부동산	27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9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2. 충남 주요경제지표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57 59 61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76 78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정 윤 성 |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이사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해저 지진 및 지진 해일은 한 달이 지난 지금 까지도 그 피해 규모가 다 밝혀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고, 수만 명의 사상자 및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일본으로서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재난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글쓰기에 앞서 먼저 이번 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지금은 비록 Display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한국에 넘겨주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핵심 원천 기술 및 핵심 소재 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고 이번 재난이 Display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향후 복구일정에 따라서는 부품소재, 장비를 비롯해 산업 전방위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피해지역들에는 인력 대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피해 정도나 향후 복구 일정 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나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번 지진 피해가 미치는 Display 산업전반의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디스플레이산업 피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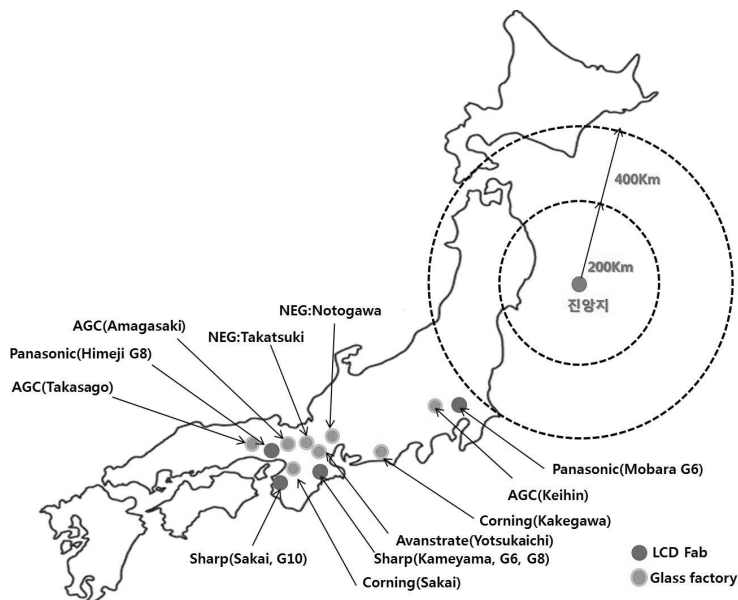
4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번 지진은 동북지역 해상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미야기, 이와테, 센다이, 이바라키 등 동일본 지역에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쳤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nasonic 모바라 G6 fab과 Hitachi 모바라 공장, 그리고 센다이에 있는 SONY Chemical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공장 자체가 손상되거나 정전이 발생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이 중에서 Panasonic 모바라 G6 Fab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평상시 panasonic LCD TV용 패널을 월 50만장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 26", 37"등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Hitachi의 G4 모바라 공장의 경우는 주로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 4월초부터 어느 정도 정상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은 비교적 거리가 있는 아사히 글래스의 케이힌 공장(G5 이하 Glass 생산)도 가동이 중단되었었는데 지진의 여파는 한국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지진 발생 당일 한국의 주요 반도체 및 LCD생산 시설에서도 노광 장비등과 같은 민감한 설비들은 일시 가동이 중지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 Display산업의 주요 핵심 시설들은 진앙지와는 거리가 먼 관서 지역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일본 Display산업의 피해 규모는 자동차, 석유 화학, 반도체 등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이 Display 완제품보다는 Display 소재 및 부품 산업, 장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Display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Display 관련 주요 생산 시설 위치도



따라서 일본의 핵심 Display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분석코자 한다.

먼저 Glass 산업의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아사히 케이힌 공장은 공장이 중단되었다가 13일경부터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전력과 용수가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알려져 있다. 또 주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두절되는 등 물류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공장은 G5 이하의 glass를 생산하므로 아사히 글래스 전체로는 G6 이상의 glass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사히는 그 공법상 후가공에서 연마(polishing)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후가공 업체로서 쿠라모토라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의 공장 위치인데 바로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동북 지역에 2개 공장이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사히 글래스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후가공 업체의 공장이 피해를 입어 한동안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iPad에 들어가는 Dragontrail glass를 아사히가 생산하므로 iPad의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실제 Dragontrail glass는 케이힌 공장이 아닌 칸사이 지역의 공장에 있는 옛 PDP Tank에서 생산하므로 피해는 없다. 또한 iPad2에는 Dragontrail glass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사히의 G5이하 Glass 후가공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서 결국 Sharp와 Toshiba등의 중소형 fab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회사 모두 LTPS용 유리기판을 아사히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이것이 향후 iPhone4용 디스플레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CPT G4, CMI G3/G4 또한 아사히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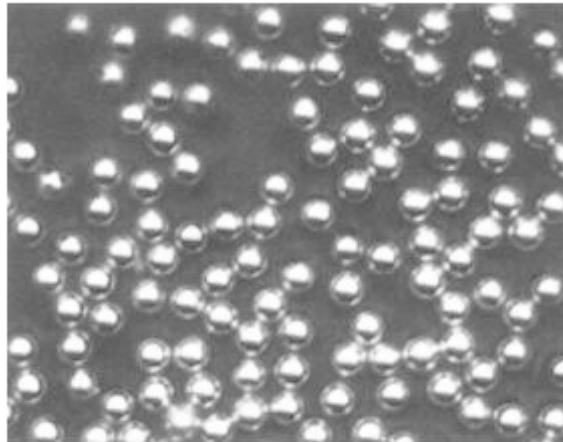
두번째로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방성도전필름)을 들 수 있다. ACF는 LCD패널과 Driver IC를 연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재료로서 이번 지진 피해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SONY Chemical과 Hitachi Chemical이 주요 생산업체이다. 실제로 Hitachi chemical은 전체 ACF 시장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SONY Chemical이 따르고 있는데 이 두 업체의 가동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 ACF는 대형디스플레이의 경우는 국내업체에서도 일부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소형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요구되는 제품 스펙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ACF는 릴형태로 되어 있고 고가의 부품도 아니며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업체들

이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패널업체들이 대략 2~3개월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재고를 1개월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일본 ACF 업체들의 정상 가동이 1달 이상 지속된다면 중소형을 시작으로 대형패널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SONY와 Hitachi 모두 지진 이후 1주일 후부터는 가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인데, 제한 송전과 파괴된 물류 인프라 등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ACF 관련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원재료 중 하나인 Resin Ball 이다(아래 그림 참조). ACF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데 SONY와 Hitachi 모두가 재료의 수급을 Nippon chemical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 Nippon chemical의 위치인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반경 50Km 이내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일부 가동을 재개했지만 방사능 오염 정도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ACF 수급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metal coated resin ball(ACF에 사용)



세 번째로는 ITO 재료를 들 수 있다. ITO는 TFT-LCD 공정상에서 ITO박막을 형성하여 공통전극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ITO Target이라는 것을 가지고 sputtering을 통해 ITO 박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TFT-LCD 공정에는 필수적이다. 또한 ITO는 Touch panel을 만들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재료이다. 그런데 이

렇게 중요한 ITO의 공급처를 살펴보면 Nikko metal, Mitsui, metal, 삼성코닝 정밀소재, ULVAC 그리고 회성금속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Nikko metal과 Mitsui metal의 마켓셰어는 각각 40%, 30% 선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계 1위 업체인 Nikko metal은 그 위치가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이내에 존재한다. 현재 Nikko metal이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CD Panel 제조업체들은 ITO 수급에 충격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업체들의 경우는 각각 ITO 생산업체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삼성전자-삼성코닝정밀소재, LG디스플레이-회성금속)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만업체들의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CMI 같은 경우 ITO 수급의 90% 이상을 Nikko metal로부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급처를 찾는 것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현재 panel업체들의 대략적인 ITO target 재고량은 약 1달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TO 수급이 4월안에는 정상화되어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는 Display용 IC류 이다. 이 중에서 먼저 Driver IC를 보면 Dirver IC 업체들 중에 OKI와 Renesas가 각각 미야기와 이바라키에 공장이 있는데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이다. 이 중에서 OKI의 경우는 해발 900m 위치에 있기 때문에 쓰나미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고 또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지만 Renesas의 경우는 가동 중단 및 Clean room 재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의 경우는 Rusem, Magnachip 그리고 삼성의 경우는 자사 IC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T-Con을 보면 대표적인 업체인 Renesas가 이바라키에 존재하는데 위의 Driver IC와 마찬가지로 가동 중단 및 공장 재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또한 한국업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업체들은 자사 칩 사용이 많고 Silicon-works 제품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Display용 IC 류에서는 한국업체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영향력이 큰 또 다른 Display관련 부품으로 Color filter를 들 수 있는데 제한 정전으로 인해 Quartz mask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mask 공급 관련 lead time이 길어지는 것은 4월경부터 Color filter maker들에게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스크 공급 Color filter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생산에도 차질이 있지

만, 신제품 개발 lead time에도 영향을 주어 개발 납기 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Color filter의 안료의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인 DIC의 경우 지진피해로 인해 정상 가동이 4월말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상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커넥터 류가 그런 것들이다. 대부분의 커넥터 들은 대만,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몇몇 high spec 제품들의 경우는 일본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다. JAE는 이러한 일본 업체들 중에 규모가 큰 업체인데 이 업체는 아오모리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상 지진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Display용 부품/소재 외에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Display산업이 있는데 바로 장비 산업이다.

Display장비 중 Photo관련 장비는 일본의 Cannon과 Nikon이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 피해로 Nikon의 경우 일부 수주 물량의 정상 출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 Nikon의 관련 공장이 바로 미야기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Nikon은 LTPS 및 AMOLED용 포토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현재 LTPS 및 AMOLED capa 증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Nikon 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결국 금년도 LTPS 및 AMOLED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Cannon의 경우는 몇몇 부품 공장을 동북지역에 가지고 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회사인 Tokki의 경우 니이가타에 공장이 있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부품 수급 차질 및 기타 점검 등으로 장비 선적이 일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장비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지진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완성품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경우, 예컨대 linear stepper motor같은, 그 생산 공장이 동북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비도 그 부품 수급이 어떨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불확실한 것이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디스플레이산업 영향 분석

지금까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내 Display산업의 피해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일본은 계획정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각 산업시설들은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피해 정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복구 또한 그 이후에 가능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볼 때 Display산업으로의 영향은 크게 보아 대형 패널 보다는 중소형 패널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Glass같은 경우 Corning Japan이 건재하고 아사히의 경우도 G6 이상의 Glass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CF등의 부자재의 경우도 대형보다는 중소형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SONY Chemical에서 생산되는 BLU용 광학 필름의 경우는 한국업체 등 대체품이 존재하므로 큰 영향이 안 될 것으로 보이며 BLU와 관련된 이슈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획정전과 파괴된 도로에 의한 물류 인프라 문제가 대형, 중소형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중소형의 경우는 장비부터 Glass, ACF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피해 복구 속도에 따라서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업체들의 경우는 일부 반사 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Sharp, TMD등이 원활한 공급을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Apple, Rim 등 Smartphone 주요 업체들이 한국의 LGD, SMD에 4월부터 더 많은 공급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업체, 특히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Display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형(9인치 이상)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지역내 대표적인 업체로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을 들 수 있는데 부품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인 SONY 외 다수의 일본 TV 메이커가 이번 지진으로 Set 공장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단기적으로는 패널 구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IT제품,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panel이 아닌 다른 노트북용 부품들(IC류, 메모리 등)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의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내 중소형업체로 대표적인 업체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인데 이 업체의 경우

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AMOLED 양산업체로서 부품 수급이라든지 제품 판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탕정에 세계 최초의 5.5세대 AMOLED를 건설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일본 장비업체, 특히 Nikon으로부터의 장비 수급이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1년 2분기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패널업체들은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인한 원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2분기 가격 반등을 노리고 있고, set업체들은 1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2분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분기를 물량으로 가야할 지, 수익성 위주로 가야할지(즉, Panel을 지금 시점에서 적극 구매할 것인지, 보수적으로 갈 것인지)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결국 2분기를 앞두고 패널업체와 set업체간 가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데 분명 이번 사건을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패널업체들은 supply chain의 붕괴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을 주장할 것이고, set업체들은 소비심리 위축 및 일본 set업체들의 가동중단에 의한 시장 활기 저하 등을 얘기할 것이다.

아직은 그 피해 규모와 그 것이 미칠 파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일본 대지진은 올해년도 display 산업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형 Display보다는 중소형 Display, 중소형 중에서도 LTPS와 AMOLED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이 재 현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도 노사 간의 입장차로 인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최저임금제의 개념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됨('87.10)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여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짐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2. 최저임금제 현황

- 2011년 3월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경영계는 4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 회의를 열고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노동·경영계는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임
-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6월말에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그리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¹⁾ 및 임금 실태분석²⁾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산출지표, 소득분배율 지표도 기초자료로 활용함

1) 미혼인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활용.

2)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임금계층별 수혜근로자수, 영향을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전년의 4,110원 보다 5.1% 인상된 금액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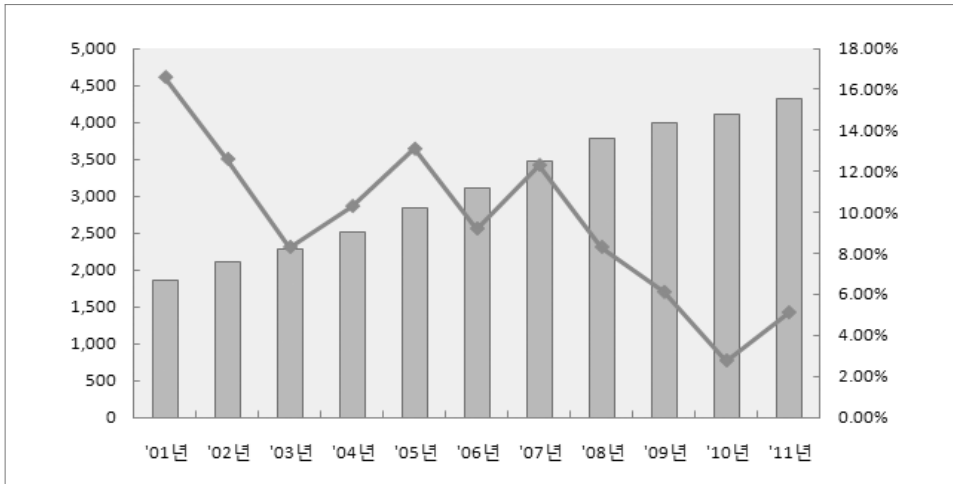
(단위 : 원, %)

기관별/적용년도	시간급	일 급 (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11.1~'11.12	4,320	34,560	5.1	'10.7.3	'10.8.3
'10.1~'10.12	4,110	32,880	2.75	'09.6.30	'09.8.3
'09.1~'09.12	4,000	32,000	6.1	'08. 6.27	'08. 7.23
'08.1~'08.12	3,770	30,160	8.3	'07. 6.26	'07. 8.1
'07.1~'07.12	3,480	27,840	12.3	'06. 6.29	'06. 8.3
'05.9~'06.12	3,100	24,800	9.2	'05. 6.29	'05. 7.28
'04.9~'05.8	2,840	22,720	13.1	'04. 6.25	'04. 8. 3
'03.9~'04.8	2,510	20,080	10.3	'03. 6.27	'03. 7.31
'02.9~'03.8	2,275	18,200	8.3	'02. 6.28	'02. 7.27
'01.9~'02.8	2,100	16,800	12.6	'01. 7.20	'01. 8. 6
'00.9~'01.8	1,865	14,920	16.6	'00. 7.21	'00. 8. 5
'99.9~'00.8	1,600	12,200	4.9	'99. 7.20	'99. 8. 5
'98.9~'99.8	1,525	12,200	2.7	'98. 7.23	'98. 8.17
'97.9~'98.8	1,485	11,880	6.1	'97. 7.24	'97. 8.12
'96.9~'97.8	1,400	11,200	9.8	'96. 7. 5	'96. 8. 5
'95.9~'96.8	1,275	10,200	8.97	'95. 7. 3	'95. 8. 5
'94.9~'95.8	1,170	9,360	7.8	'94. 7. 5	'94. 7.29
'94.(1~8)	1,085	8,680	7.96	'93. 10.11	'93.12. 4
'93	1,005	8,040	8.6	'92. 10.10	'92.12. 4
'92	925	7,400	12.8	'90. 10.11	'91.12.13
'91	820	6,560	18.8	'90. 10.12	'90.12.13
'90	690	5,520	15.0	'89. 10.12	'89.12.19
'89	600	4,800	1그룹29.7 2그룹23.7	'88. 10.12	'88.11.12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	'87. 12.24	'87.12.3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인상률 추이

(단위 : 원, %)



-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로는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가 있으며 그 밖에 일(멕시코, 필리핀), 주(호주), 월(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18개 국가)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국가도 있음
- 외국의 최저임금은 ① 근로자와 그 가족의 빈곤 수준과 기본적 필요(basic needs), ② 일반적인 임금 수준, ③ 생계비와 그 변화, ④ 사회보장급여, ⑤ 다른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 생활수준, ⑥ 경제적 요인 : 경제 개발, 생산성 수준, 고용 수준, 지불능력 등 6대 준거지표로 결정 됨(ILO 협약 131호, 권고 135호)
 - 2007년 기준 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14,210원(원화 환산)이며, 한국은 3,770원으로 가장 낮음
 - 일본, 미국,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숙박비가 포함되는 나라도 상당수 존재 함

시간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07 연평균 기준) : 1\$=929,18원, 1€=1,273,12원)

국 가	적용연도	시간당 최저금액			1인당 GNI'06,\$)	비고
		해당국 통화	달러환산(\$)	원화환산(원)		
한 국	'08.1.1~ 12.31	₩3,770	4.06	3,770	17,690	상여금 및 숙박비 제외
일 본	'07.7.24~ '08.7.23 '08.7.24~ '09.7.23	¥618-739	5.25-6.28	4,870-5,830	38,410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제, 상여금제외, 숙식비 포함(단, 식사현물제외)
미 국	'07.7.1~	\$5.85 \$6.55	5.85 6.55	5,430 6,080	44,970	연방 최저임금, 상 여금 및 숙박비 포함
캐 나 다	'08.4.1~	C\$7.25-8.5	6.75-7.91	6,260-7,350	36,170	주별 최저임금
뉴질랜드	'08.4.1~	N\$12.00	8.88	8,250	27,250	18세 이상 숙박 비 포함
이탈리아	'04.3.3~	€6.70	9.18	8,530	32,020	단순근로자 최저등급
영 국	'07.10.1~ '08.9.30	£5.52	11.04	10,250	40,180	22세 이상, 상 여금 및 숙박비 포함
프 랑 스	'07.7.1~ '08.6.30	€8.44	11.56	10,740	36,550	주당 35시간 이상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아일랜드	'07.7.1~	€8.65	11.85	11,010	45,580	18세 이상 숙련된 성인근로자, 상여 금 및 숙박비 포함
덴 마 크	'03~	€8.8	12.06	11,200	51,700	비숙련근로자
독 일	'07.9.1~	€10.40(서독) € 9.00(동독)	14.25 12.33	13,240 11,450	36,620	지역, 업종별 단 체협약 고시
노르웨이	'02~	NOK 90	15.30	14,210	66,530	노사단체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 해 최저임금 결정

주 : 환산된 원 단위 이하는 절사.

자료 : ILO, EU-Eurostat, FedEE, 미(美)노동성, 영(英)최저임금위원회, 일(日)중앙저임금심의회, 세계은행.

3. 최저임금 관련 논의

-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월 902,880원)을 현재보다 시간당 1,000원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2년 최저임금으로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25.2% 인상된 5,41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2012년 최저임금으로 5,393원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0,69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임
-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출하였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재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경영단체 간의 조율을 거쳐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한 예정이나 2012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5% 이내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0년 이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세·한계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대량해고 등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4. 제언

- 경제상황이 크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는 크게 심화되고 있음
 - 특히 비정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임금과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
 - 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빈곤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 저소득자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기준임금의 현실화 등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조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격돌 예고(KBS뉴스, '11.3.8), 민주노총,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5,410원 요구(아시아경제, '11.3.7), 민주노총 최저임금 5,410원 요구(YTN, '11.3.6)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ADM, 미래 유망산업의 리더

— (주)ADM(www.adm21.com) —

현재 충남 천안시 성거읍에 자리잡고 있는 (주)ADM(대표이사 정인택, www.adm21.com)은 충남이 자랑하는 강소기업 중 하나이다.

2004년 2월 설립된 ADM은 현재 반도체, LCD 제조장비 및 검사장비, FA 자동화설비를 개발·제작하고 있으며,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충청남도로부터 '2010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우량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있는 ADM를 찾아가 보자.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성거읍으로 확장 이전한 ADM을 찾았다. 주황색 띠를 두른 커다란 공장형 건물에 들어서자 1층 생산설비제작공장을 비롯한 2층 부설 연구소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화로만 통화했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필자와 비슷한 또래(?)가 아니었다. 바로 ADM 정인택 대표(40)였다.



(주)ADM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회사 개요

창업	2004년 2월
대표이사	정 인 택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66-30
주요사업	반도체, LCD 제조장비, FA 자동화설비 개발·제작
직 원	26명
매 출	약 100억원(2010년 기준)

인천기계공고를 거쳐 인천지방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 이후 기아자동차(주)에 입사한 정 대표는 6년간 대기업의 조직관리와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되고, 국내 반도체산업의 활성화를 예견하며 전공 분야인 기계장비산업을 응용한 반도체장비업체로 옮기면서 관련 기술을 습득, 결국 2004년 지금의 ADM을 창업했다. ADM은 ‘Advance Dream Master’의 약자다.

정 대표는 “창업 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직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이 결여된 경영 마인드

를 많이 보았다.”며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모습의 회사상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ADM을 통해 자기 자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든 직원들의 행복을 우선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ADM은 설립 초기에는 반도체 장비와 LCD 제조장비의 정밀부품을 주로 생산하다가 2005년부터 반도체, LCD장비 및 FA자동화설비를 개발·제작하게 된다. 그리고 2009년에 설립된 부설 연구소를 통해 LED SCREEN PRINTER를 독자 개발하여 2010년 10월부터 삼성 테크윈(주)과 휘닉스 디지털테크(주)에 ODM방식으로 장비를 납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만과 중국에 10여대의 장비를 수주하여 2011년도에는 해외에서 더 큰 호응과 실적을 기대하게 되었다. 결국 자체 기술 개발과 투자로 인한 경쟁력을 통해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는 뜻이다.

현재 ADM은 LCD 시장의 호황과 업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에 힘입어 주력 생산 제품인 LCD Glass Oven 장비로만 6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실현시켰고, 한화테크엠(주)의 주 협력사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ADM의 주력 제품인 FPD/LCD 제품



창업초기 연매출 10억이었던 ADM은 2010년 100억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가 120억, 내년도는 150억이라고 밝힌 정 대표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꾸준하고 안정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기 싫어서다.

그렇다고 ADM이 모 프로그래밍처럼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4년 창업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07년 LCD 7세대가 성장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타게 되고 이때부터 투자 설비를 늘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게 정 대표의 말이다.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도에는 정 대표를 포함하여 전체 직원 임금을 30% 삭감하는 응급상황까지 겪었다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 수급이나 기초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장비제작단가는 올라가고 납품단가는 그대로여서 고민이 크다고 한다. 또 이번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선발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분명 향후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 대표는 “기술개발을 통해 이를 상품화 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인 개발비와 개발후의 시장성 확보, 업체 간 저가수주경쟁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젊은 인재들이 제조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게끔 취업을 해줘야 하는데 편한 일들만 찾아다니는 근

시안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점점 더 대기업 중심의 경쟁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발전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반도체산업의 호황기, 2000년대 LCD와 휴대폰산업의 호황기, 2011년 초까지는 LCD산업이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향후 2-3년 후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국내 제조산업의 크나큰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의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참여의식이 형성되어야만 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망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앞으로 예견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ADM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을 통해 핵심인력들의 전문기술력이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오래된 노하우와 신기술에 대한 습득이 월등하다는 평이다. 또한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상시과제인 원가절감면에서 볼 때,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개발, 정밀가공부서에서의 자체



ADM 정인택 대표

정밀부품 가공, 제조부서의 자체 장비제조로 이어지는 전 공정의 라인업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의 원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ADM만의 혁신이자 회사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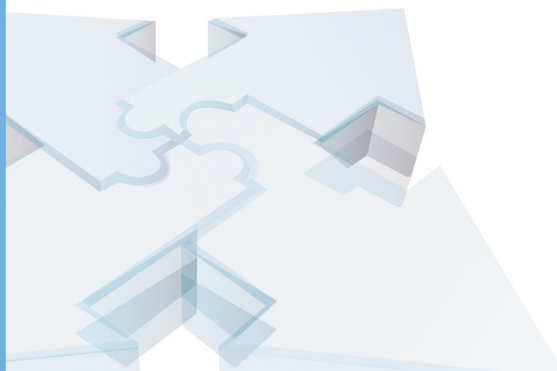
이미 ADM은 올해 120억 매출 목표의 50%를 이미 확보하여 실행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희망의 300억 매출과 현재 4건인 특허등록건수를 10건 이상으로 실현할 것을 내비쳤다.

ADM 정인택 대표는 “2011년에는 그간의 성장세를 몰아 SOLAR SCREEN PRINTER를 계획·개발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래산업인 태양전지산업의 성패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1등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록 조직은 작더라도 기술력과 열정으로 뭉친 중소기업에 있다.”면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중소기업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인터뷰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3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6.8	140.2	135.6	115.1	123.0	120.4	38,607	36,198	24,431	23,336	4.5
서울	91.2	96.3	151.2	112.6	121.6	119.3	3,628	8,714	5,221	4,947	5.3
부산	134.3	133.1	152.2	117.9	124.6	121.3	965	1,023	1,603	1,532	4.4
대구	124.7	126.5	133.5	92.1	123.3	120.2	398	238	1,204	1,137	5.6
인천	117.5	120.0	116.9	114.4	121.9	120.2	1,732	2,820	1,375	1,294	5.9
광주	179.3	164.9	112.7	120.6	122.5	120.1	771	373	668	639	4.2
대전	124.8	121.9	110.2	104.6	124.0	121.1	312	203	729	689	5.5
울산	108.2	122.1	101.6	106.5	124.7	122.1	6,612	5,860	561	539	4.0
경기	179.1	157.6	194.4	114.9	123.4	120.8	6,253	6,459	5,912	5,656	4.3
강원	119.2	117.4	149.6	143.1	123.1	120.4	125	94	624	596	4.5
충북	156.9	167.8	168.0	118.1	123.3	120.8	904	559	719	697	3.0
충남	234.5	220.4	204.0	158.3	123.1	120.9	4,218	2,211	955	924	3.3
전북	141.9	144.2	137.2	128.9	123.7	121.2	870	358	798	765	4.2
전남	124.4	123.4	108.1	139.4	123.6	121.1	3,173	3,227	870	841	3.3
경북	106.0	109.0	150.1	130.9	124.6	121.4	3,915	1,774	1,326	1,266	4.6
경남	140.1	146.3	120.2	129.0	124.0	121.3	4,725	2,269	1,574	1,531	2.7
제주	123.0	129.5	77.9	138.0	122.2	119.3	7	14	291	285	2.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경제동향(요약)



- 2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상승 후 하락 반전 및 선행지수 역시 하락세로 반전하여 경기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월중 충남 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그러나 수출의 감소세 전환, 기업경기가 기준치를 하회함으로써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음
- 전월대비 산업활동은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며, 물가상승 지속 및 고용사정은 개선되어가는 추세임

경기

- 2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한 135.8 기록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4월 BSI는 제조업은 상승, 비제조업은 하락(제조업 99, 비제조업 82)
-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기전망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래시장 동향지수는 기준지수 100을 상회하며 재래시장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산업활동

- 2월 산업생산활동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 지속(전월대비 생산, 출하, 재고 감소)
- 생산지수 2047(+2.2%), 출하지수 189.8(+7.4%), 재고지수 2047(+9.1%) 모두 전월대비 증가

소비 및 물가

-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월대비 18.8% 감소, 지수는 158.3 기록
- 3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45,308대로 전월대비 0.4%(3,257대) 증가
- 3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120.9(+0.2%), 생활물가지수 123.1(+0.0%)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출입

- 2월 수출은 전월대비 10.9% 감소(42억15백만달러, 석유제품 +78.9%, 자동차 +111.5% 등)
- 수입은 전월대비 12.8% 감소(22억10백만달러, 원유 +25.1%, 석탄 +121.1% 등)
- 2월 무역수지는 20억5백만달러 흑자

고용

- 2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3.4%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0.3%p 증가(+58.6%)
- 취업자 2.8% 증가한 92만4천명(사업·개인·공공서비스 +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1.3%)
- 2월 실업률 3.3%로 전월대비 0.7%p 증가, 실업자 31천명으로 전월대비 28.9% 증가

금융

- 2월 금융기관 수신 전월대비 감소세 전환, 여신은 증가세로 전환
- 2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101억원, 총 여신증감액 +53억원
- 2월 어음부도율 0.17%로 전월보다 0.03%p 하락(홍성 상승, 천안, 공주, 서산 지역 감소)
- 2월 부도금액 20억7천만원으로 전월보다 2억2천만원 감소(제조업 증가, 건설업 감소, 서비스업 전월대비 감소)

건설 및 부동산

- 2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0.9%(403천 m^2), 착공면적 57.7%(403천 m^2) 각각 증가
- 3월 주택매매가격 지수 101.5로 전월대비 0.8%(주요 상승지역; 논산, 천안 서북구), 전세가격지수 107.8로 전월대비 1.2% 상승(주요상승지역; 논산, 아산)

1. 경기동향

[전국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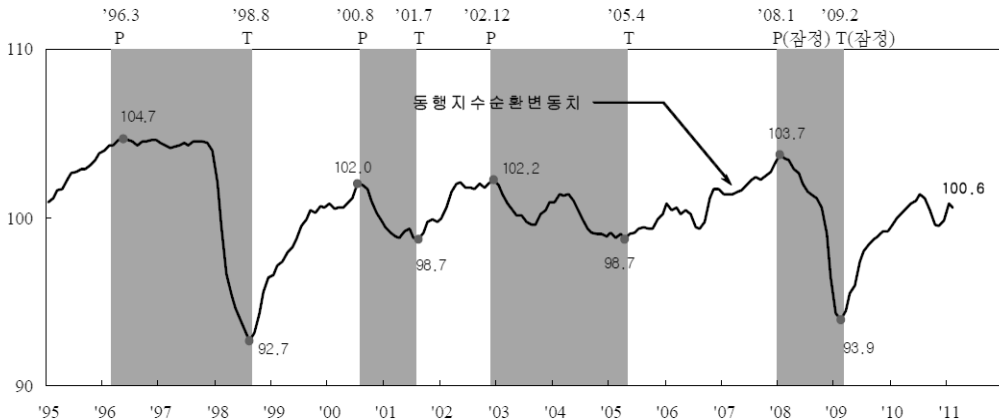
- 2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수입액,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보다 0.2p 하락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

구분	'10.7월	8월	9월	10월	11월 ^o	12월 ^o	'11.1월 ^o	2월 ^o
○ 동행종합지수	132.4	132.6	132.2	131.8	132.1	133.1	135.0	135.4
· 전월비(%)	0.8	0.2	-0.3	-0.3	0.2	0.8	1.4	0.3
○ 순환변동치	101.4	101.1	100.4	99.6	99.5	99.8	100.8	100.6
· 전월차(p)	0.4	-0.3	-0.7	-0.8	-0.1	0.3	1.0	-0.2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기계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자본재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4%로 전월보다 0.6%p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0.7월	8월	9월	10월	11월 ^o	12월 ^o	'11.1월 ^o	2월 ^o
○ 선행종합지수	128.4	128.8	128.8	128.4	128.7	129.3	130.1	129.9
· 전월비(%)	0.5	0.3	0.0	-0.3	0.2	0.5	0.6	-0.2
○ 전년동월비	6.2	5.4	4.5	3.3	2.8	2.9	3.0	2.4
· 전월차(%p)	-0.6	-0.8	-0.9	-1.2	-0.5	0.1	0.1	-0.6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월중 **동행종합지수**는 대형소매점판매지수의 큰 폭 상승과 함께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며 **135.8**로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 지속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증가한 **101.8**을 나타내며 **상승세** 지속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구 분	'10.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1.1월 ^p	2월 ^p
○ 동행종합지수	131.2	131.8	132.1	131.9	131.9	132.8	134.8	135.8
· 전월비(%)	0.6	0.4	0.2	-0.1	-0.0	0.7	1.5	0.7
○ 순환 변동치	101.4	101.4	101.2	100.7	100.1	100.4	101.5	101.8
· 전월차(%p)	0.2	0.0	-0.2	-0.5	-0.6	0.3	1.1	0.4

주) p는 잠정치임.

- 2월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는 대형소매점판매지수의 큰 폭 상승과 지난달 상승했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감소세로 반전
 - 비농가취업자수(+1.0%), 산업생산지수(+0.2%), 대형소매점판매지수(+6.2%), 전력사용량(+0.9%) 증가
 - 수출액(-0.3%), 수입액(-1.2%)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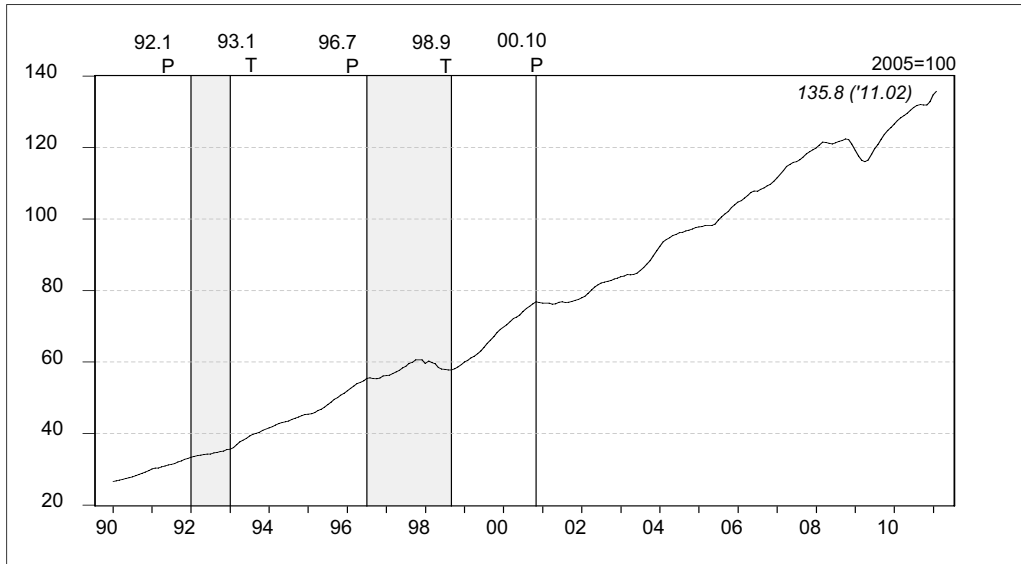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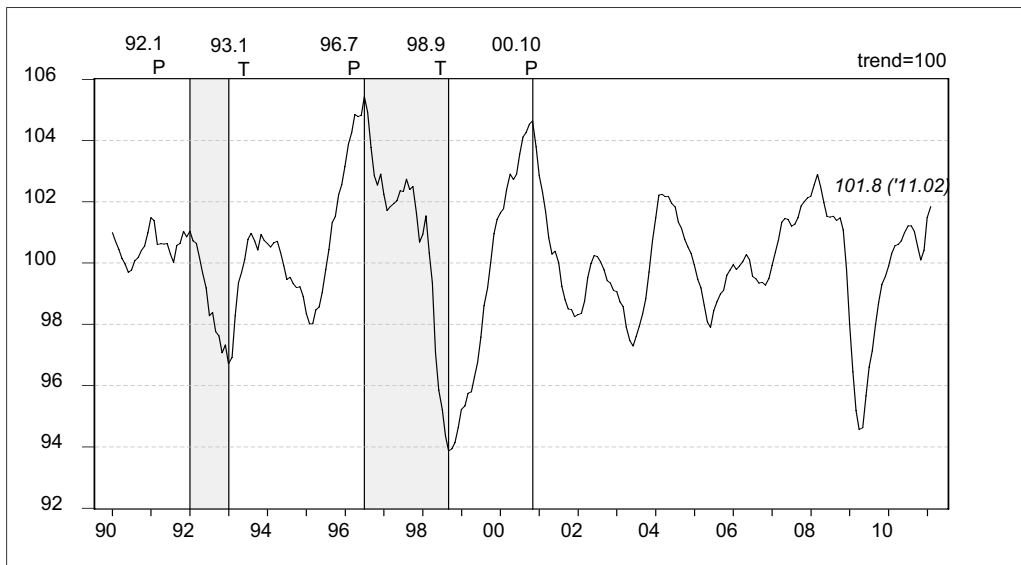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0.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1.1월 ^p	2월 ^p
비농가취업자수	0.2	0.0	-0.4	-0.9	-0.3	0.2	0.7	1.0
산업생산지수	0.8	1.5	0.9	1.4	0.8	-0.1	0.6	0.2
대형소매점판매지수	1.9	-0.4	-0.2	-2.5	-2.6	10.5	14.2	6.2
전력사용량	0.7	1.0	1.0	1.0	0.8	1.2	1.6	0.9
수출액(실질)	2.3	1.5	0.9	0.3	-0.5	-0.2	1.0	-0.3
수입액(실질)	1.9	0.7	0.9	0.4	0.7	-1.7	1.2	-1.2

주) 증감률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1. 4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는 99로 전월(98)보다 1p 상승, 자금사정전망 BSI는 100으로 전월(95)보다 5p 상승
- 2011. 4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82로 전월(83)보다 1p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는 95로 전월(90)보다 5p 상승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은 3월, 4월 모두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월에 부진하였던 자금사정도 4월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반해 비제조업 업황은 4월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자금사정은 2011년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기업경기	99	100	95	95	94	98	99(95)	+1(-1)
매출	114	112	108	112	116	113	112	-1
생산	110	114	110	107	111	109	111	+2
신규수주	105	106	100	105	111	111	109	-2
채산성	92	92	88	88	89	84	86	+2
제품재고	102	102	101	99	98	96	98	+2
인력사정	84	86	91	92	89	91	89	-2
자금사정	99	92	97	101	99	95	100	+5
외부자금수요	120	117	118	119	115	115	119	+4
자금조달사정	100	94	96	100	99	97	101	+4

주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기업경기	86	85	95	84	85	83	82(83)	-1(-2)
매출	100	95	95	91	85	85	90(92)	+5(-8)
채산성	88	90	94	89	83	89	89(89)	0(-1)
인력사정	93	93	91	86	93	85	86(90)	+1(-1)
자금사정	94	87	91	85	88	90	95	+5
외부자금수요	116	114	109	116	117	121	123	+2
자금조달사정	95	87	93	85	86	93	93	0

주 : ()내는 전국 기준.

$$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3월 충남지역 재래시장 업황실적은 71.4로 전월대비 33.2% 상승, 매출실적과 (75.0) 자금사정(72.6)은 모두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
- 4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업황전망(109.5)과 자금사정전망(100.0)은 전월대비 각각 5.2%, 2.3% 하락한 반면, 매출전망은 120.2로 전월대비 9.8% 상승
- 충남의 재래시장 실적은 전월대비 모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망 역시 3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지수 100을 상회하여 재래시장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실적

(기준지수=100)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 감 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업황	전국	95.0	74.6	82.0	59.6	50.0	47.5	58.6	23.4
	충남	97.6	66.7	94.0	58.3	39.3	53.6	71.4	33.2
매출	전국	97.2	74.9	81.5	59.5	53.9	47.6	62.2	30.7
	충남	103.6	67.9	96.4	57.1	36.9	48.8	75.0	53.7
자금 사정	전국	81.0	74.6	75.8	62.7	56.6	55.1	61.6	11.8
	충남	86.9	69.0	85.7	57.1	53.6	66.7	72.6	8.8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 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 감 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업황	전국	108.5	105.4	86.5	84.9	77.8	109.6	104.8	-4.4
	충남	114.3	98.8	73.8	79.3	81.0	115.5	109.5	-5.2
매출	전국	109.6	106.0	85.9	83.9	75.5	108.6	106.4	-2.0
	충남	121.3	100.0	67.5	86.3	76.2	109.5	120.2	9.8
자금 사정	전국	97.9	95.0	82.4	80.9	80.5	100.5	98.7	-1.8
	충남	103.8	95.2	80.8	79.8	89.3	102.4	100.0	-2.3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 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산업생산 동향]

- 2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8%, 전월대비 2.2% 각각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의약품,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P	2월 ^P
산업생산지수	207.5	223.6	242.7	236.0	227.3	224.6	204.7
전년동월비	72.3	3.4	17.6	15.0	7.3	8.2	9.8
전월비	2.3	-0.5	-0.2	-1.3	-2.4	3.6	2.2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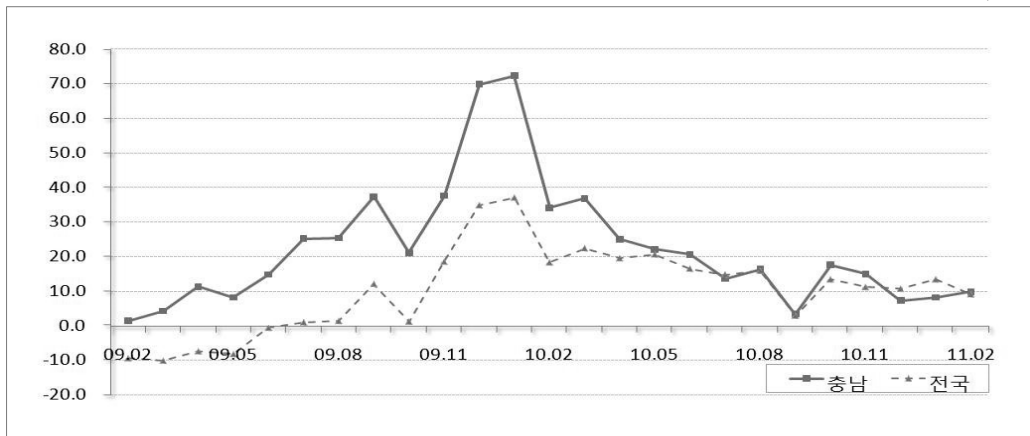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1.3) : TV용LCD, 노트북용LCD, 에폭시인쇄회로기판, PDP 등
- 의약품(+45.6) : 의약품
- 기계및장비(+20.9)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열처리로 및 전기로, 반도체공정장비 등
- 전기장비(+25.8) : 소형2차전지셀, 배전반, 스위치, 소형전동기 등

[감소업종]

- 비금속광물제품(-7.3) : 액정모니터유리, 석고판제품, 콘크리크벽돌 및 ब्ल록 등
- 의료정밀및광학(-39.2) : 무선원격조절기, 광선치료기, 안경렌즈, 의료처치기구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월 충남의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8%, 전월대비 7.4% 각각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P	2월 ^P
출하지수	186.3	208.6	221.4	218.7	204.4	198.5	189.8
전년동월비	65.0	6.3	17.2	16.3	4.9	6.5	12.8
전월비	1.4	2.1	-1.9	-0.6	-4.3	2.9	7.4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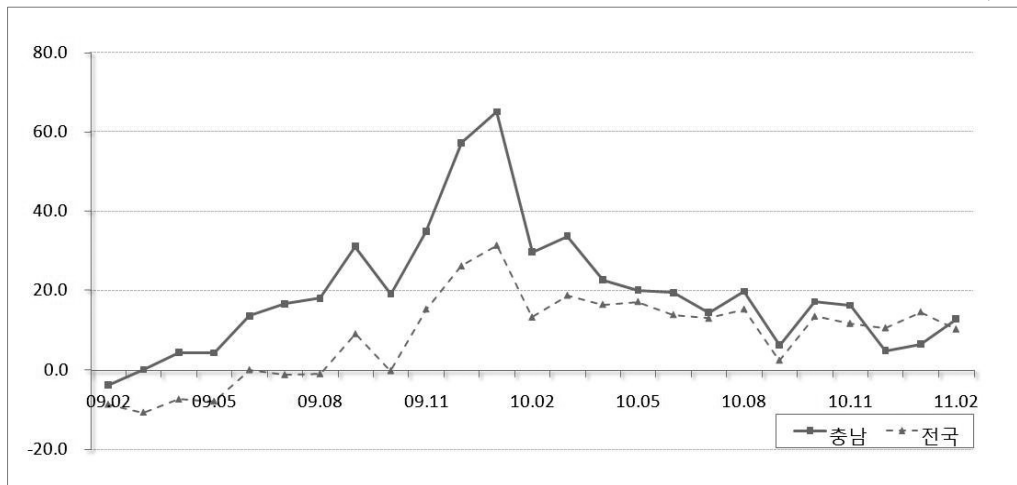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1.0) : TV용LCD, 노트북용LCD, 에폭시인쇄회로기판, 포토마스크 등
- 기계및장비(+37.1)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열처리로 및 전기로, 반도체공정장비 등
- 자동차(+17.7) :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제동장치 등
- 석유정제품(+16.8) : 제트유, 경유, 나프타, 등유 등

[감소업종]

- 비금속광물제품(-2.5) : 액정모니터유리, 석고판제품, 아스콘, 연마지 및 포 등
- 의료정밀및광학(-36.6) : 무선원격조절기, 안경렌즈, 광선치료기, 의료처치기구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8%, 전월대비 9.1% 각각 증가
 - 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자동차,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P	2월 ^P
재고지수	124.7	223.6	242.7	236.0	227.3	224.6	204.7
전년동월비	-8.8	3.4	17.6	15.0	7.3	8.2	9.8
전월비	0.6	-6.3	6.7	-0.5	10.7	13.4	9.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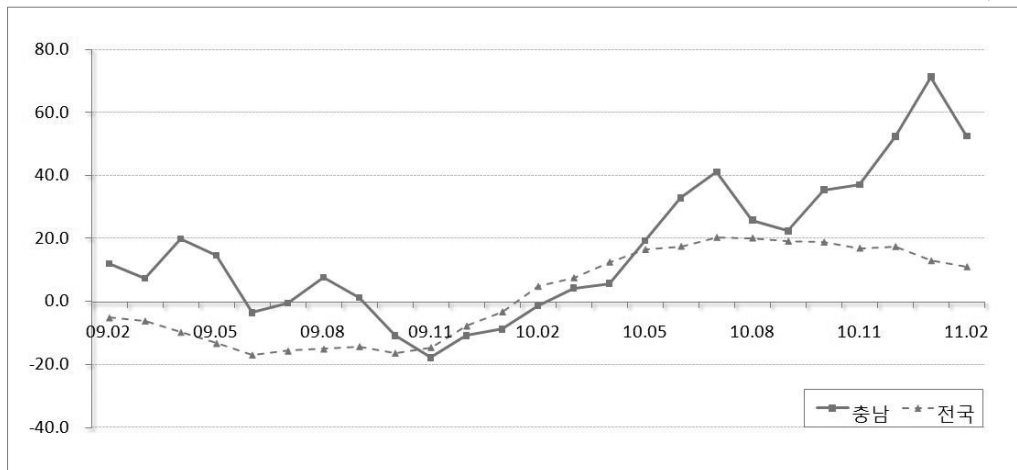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58.3) : TV용LCD, PDP, 에폭시인쇄회로기판, 포토마스크 등
- 제1차금속(+38.3)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등
- 자동차(+39.6) :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등
- 전기장비(+32.5) : 소형2차전지셀, 소형전동기, 건전지, 김치냉장고 등

[감소업종]

- 식료품(-4.9) : 분유, 아이스크림류, 홍삼, 고추장 등
- 의복및모피(-14.6) : 스타킹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3. 소비 · 물가

[소비]

- 2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08,755백만원으로 전월대비 18.8% 감소,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지수는 158.3 기록
- 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감소로 인해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18.2%, 전년동월대비 0.7% 각각 감소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1.2) : 컴퓨터(+33.0), 통신기기(+8.8%)
- 준내구재(-10.0) : 가방(-21.4%), 의복(-17.9%)
- 비내구재(-22.9) : 화장품(-26.5%), 음식료품(-25.0%)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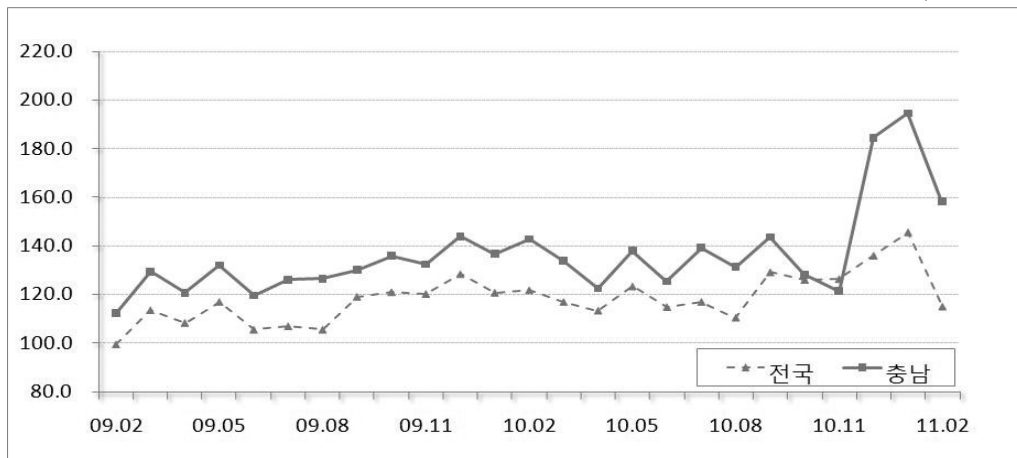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o	2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728,878	5,075,373	5,517,940	5,991,660	4,735,783	-1.0	-21.0
충 남	163,984	142,477	196,647	219,462	178,730	9.0	-18.6
대형소매점	93,492	81,277	124,757	133,939	108,755	16.3	-18.8
대형마트	70,492	61,200	71,890	85,523	69,975	-0.7	-18.2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3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845,308대로 전월대비 0.4%(3,257대), 전년동월대비 5.0%(39,908대) 각각 증가
 - 차종별로는 전월대비 승용차(+0.5%), 승합차(+0.0%), 화물차(+0.2%), 특수화물차(+0.3%) 등록대수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0.3%)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6.3%), 화물차(+2.3%), 특수화물차(+6.0%) 등록대수는 증가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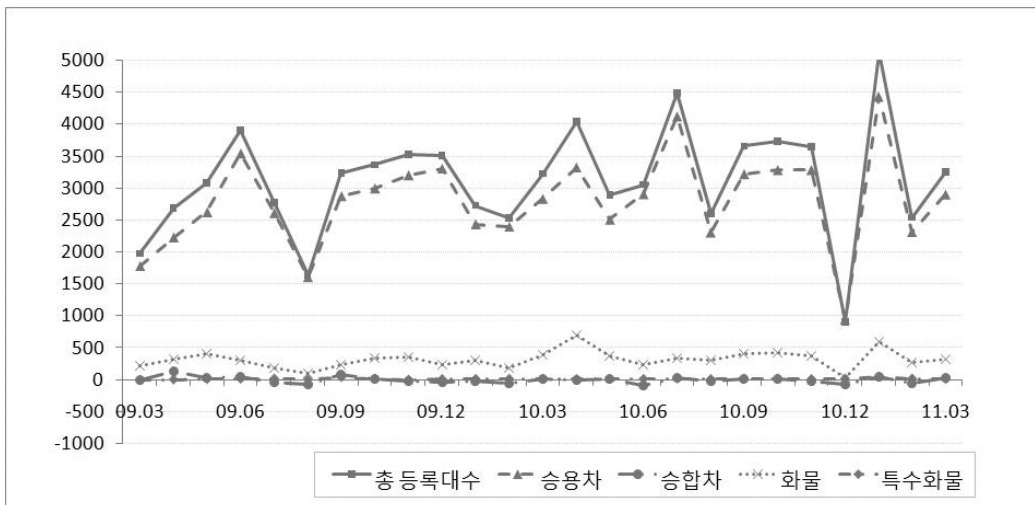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0년		2011년			증 감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05,400	834,391	839,513	84,2051	845,308	39,908	3,257
차 종 별	승용	561,742	587,668	592,102	59,4418	597,321	35,579	2,903
	승합	50,576	50,401	50,447	50,393	50,416	-160	23
	화물	190,533	193,685	194,284	194,546	194,869	4,336	323
	특수화물	2,549	2,643	2,680	2,694	2,702	153	8
용 도 별	자가용	768,992	796,538	801,147	803,473	806,725	37,733	3,252
	관용	3,763	3,851	3,891	3,929	3,947	184	18
	영업용	32,645	34,002	34,475	34,649	34,636	1,991	-13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물가]

- 3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4.7% 각각 상승
 - 농축산물(+17.7%), 공업제품(+6.2%), 집세(+2.6%), 공공서비스(+0.2%), 개인서비스(+2.4%)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23.1로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42.8로 전월대비 0.1% 감소, 전년동월대비 21.6%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0.9%, 13.7% 상승, 신선과실은 31.6% 상승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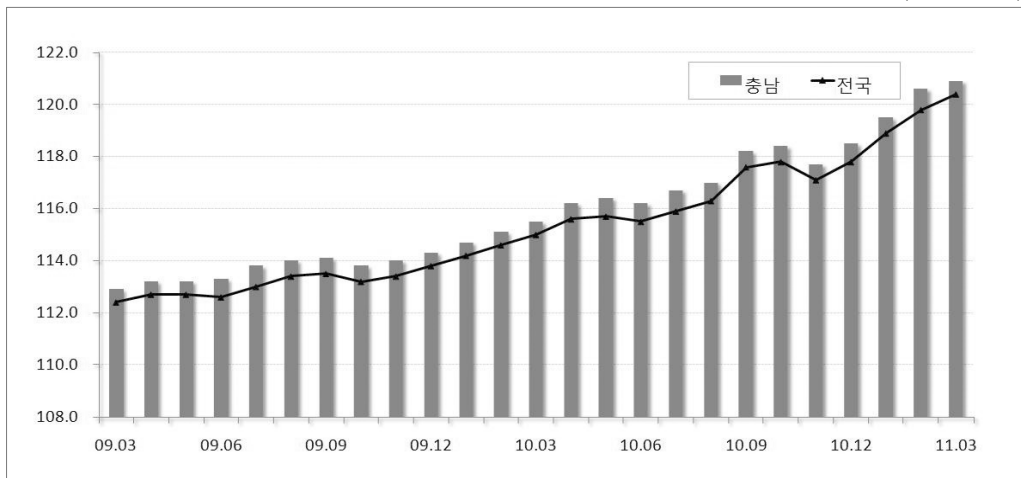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5.0	117.8	118.9	119.8	120.4	4.7	0.5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5.5	118.5	119.5	120.6	120.9	4.7	0.2
상품 성질별	상 품		116.3	122.1	123.6	125.2	126.3	8.6	0.9
	서비스		114.9	115.9	116.5	117.4	117.0	1.8	-0.3
생활물가지수			117.5	120.3	121.6	123.1	123.1	4.8	0.0
신선식품지수			117.4	140.2	140.9	143.0	142.8	21.6	-0.1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월 충남의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 전월대비 10.9% 감소
 -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42억15백만달러)하여 증가세 지속(+29.2%→+15.5%)
 - 석유제품(+78.9%)과 자동차(+111.5%)의 증가가 수출 증가세에 기인
- 2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탄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전월대비 12.8% 감소
 - 원유(+25.1%), 석탄(+121.1%) 등의 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증가세 지속(+39.9%→+16.9%)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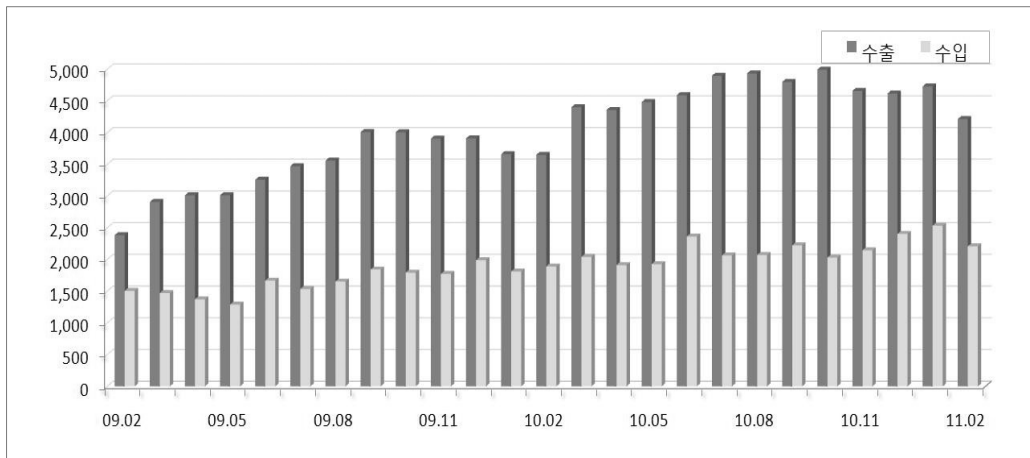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33,039	41,261	44,145	44,603	38,607	16.9	-13.4
	수입	31,044	38,669	40,057	41,762	36,146	16.4	-13.4
	무역수지	1,995	2,592	4,088	2,841	2,461	-	-
충남	수출	3,651	4,660	4,619	4,730	4,215	15.5	-10.9
	수입	1,891	2,147	2,405	2,535	2,210	16.9	-12.8
	무역수지	1,760	2,513	2,214	2,195	2,005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2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215	15.5	-10.7	100.0
1	반도체	1,242	14.7	-15.0	29.5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09	-6.8	-12.7	26.3
3	석유제품	261	78.9	-12.1	6.2
4	석유화학중간원료	168	39.4	20.0	4.0
5	합성수지	164	16.0	-3.0	3.9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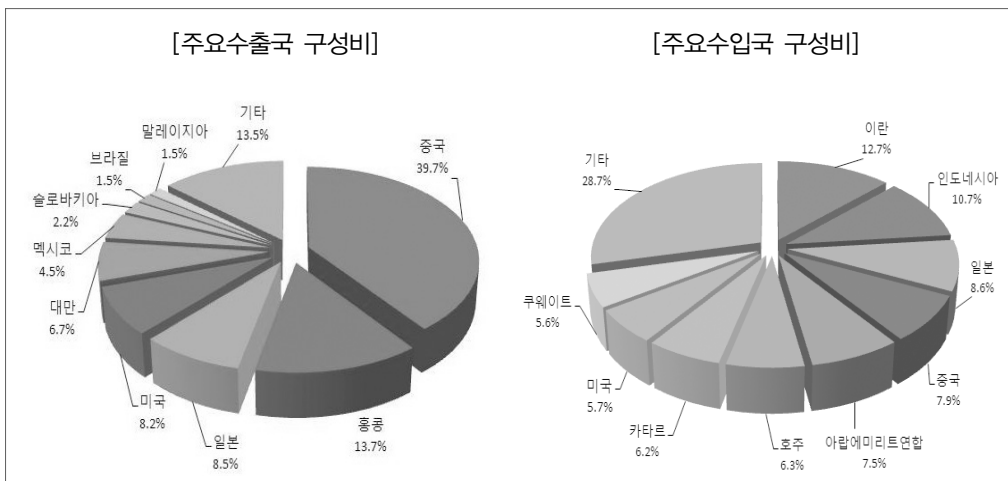
2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210	16.9	-12.8	100.0
1	원유	859	25.1	-17.1	38.9
2	석탄	312	121.1	-21.4	14.1
3	석유제품	258	-5.9	-8.8	11.7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52	-4.4	126.1	2.4
5	제지원료	40	11.8	21.2	1.8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2월 국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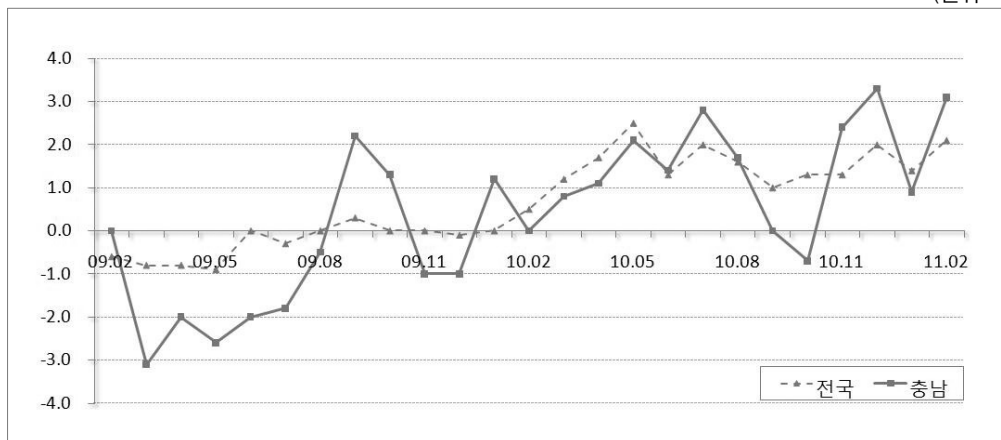
- 2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6%,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 각각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630천명으로 전년동월(1,605천명)보다 25천명(+2.0%)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955천명으로 전년동월(936천명)보다 19천명(+2.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취업자]

- 2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9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2.8% 각각 증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3%)부문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1.2%), 도소매·음식숙박업(-6.8%) 부문의 취업자는 감소하였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월 충남의 실업자는 31천명으로 전년동월(40천명)대비 9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4.3%)대비 1.0%p 감소한 3.3%

6. 금 용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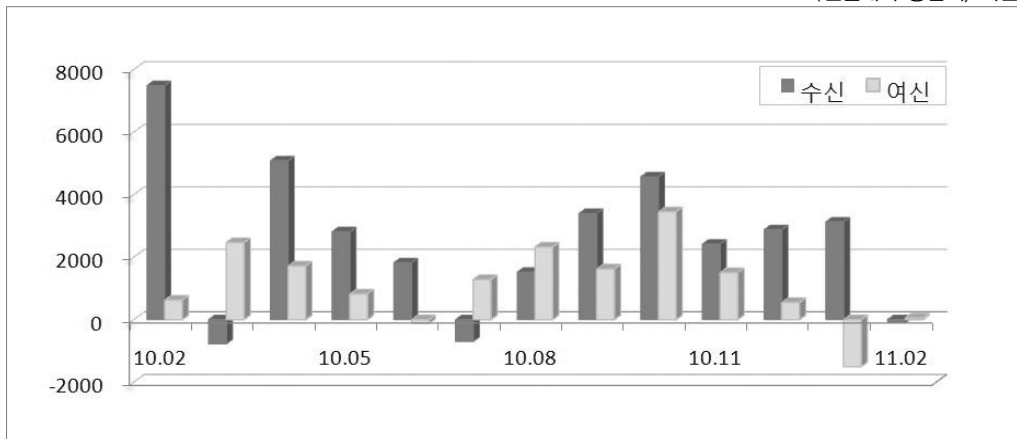
- 2월말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5조 2,336억원, 비은행기관 28조 3,236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3조 5,572억원 기록
 - 예금은행 : 수시입출식예금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거치·적립식예금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증가폭 확대 [1월 +1,338억원 → 2월 +2,391억원]
 - 비은행기관 :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라 비은행기관의 신뢰도 하락된 가운데 영농자금 상환용 예금 인출, 상여금 유치 등 계절요인으로 감소로 전환 [1월 +1,789억원 → 2월 -2,492억원]
 - 총 수신증감액 : 1월 +3,127억원 → 2월 -101억원

[여신]

- 2월말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2조 7,905억원, 비은행기관 15조 3,637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38조 1,542억원 기록
 - 예금은행 : 일부 건설회사의 아파트건설자금 상환 및 가계대출은 세종시 아파트중도금대출 취급 등으로 증가 전환 [1월 -703억원 → 2월 -137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은 영농자금 수요 등의 계절요인, 새마을금고의 소액신용대출 증가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 전환 [1월 -800억원 → 2월 +190억원]
 - 총 여신증감액 : 1월 -1,503억원 → 2월 +53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2월 충남의 부도율은 0.17%로, 전월대비 0.03%p 하락
 - 지역별로는 천안 0.09%, 홍성 0.92%, 논산 0.08%, 공주 0.00%, 서산 0.01% 기록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연중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17	0.29	0.22	0.13	0.20	0.17	-0.03	-0.12
천 안	0.19	0.49	0.29	0.12	0.16	0.09	-0.07	-0.40
홍 성	0.33	0.11	0.25	0.27	0.73	0.92	0.19	0.81
논 산	0.20	0.55	0.25	0.23	0.14	0.08	-0.06	-0.47
공 주	0.02	0.00	0.08	0.01	0.11	0.00	-0.11	0.00
서 산	0.05	0.00	0.08	0.05	0.00	0.01	0.01	0.01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2월 중 부도금액은 20억 7천만원으로 전월보다 2억 2천만원 감소
 - 제조업 : 1월 9억 4천만원 → 2월 15억 9천만원
 - 건설업 : 1월 4억 2천만원 → 2월 9천만원
 - 서비스업 : 1월 8억 6천만원 → 2월 3억 4천만원
- 2월 중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월(3개)보다 3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각각 1개씩 감소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12.5	6.5	8.0	9.4	15.9	3.4	6.5
	건설업	15.3	2.3	2.0	4.2	0.9	-14.4	-3.3
	서비스업	4.7	4.1	4.1	8.6	3.4	-1.3	-5.2
	기타	0.7	12.5	1.2	0.3	0.5	-0.2	0.2
	합계	33.2	25.4	15.3	22.5	20.7	-12.5	-1.8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1	0	1	0	0	-1
	건설업	0	1	1	1	0	0	-1
	서비스업	1	1	1	1	0	-1	-1
	기타	0	0	0	0	0	0	0
	합계	1	3	2	3	0	-1	-3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2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163개로 전월(186개)보다 23개 감소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403천㎡로 전월대비 0.9% 증가,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
- 2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40.0%), 주거용(24.1%), 상업용(17.6%)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461,775	812,945	480,231	399,707	403,350	-12.7	0.9
주거용	147,870	331,957	95,017	68,921	97,222	-34.3	41.1
상업용	48,242	118,892	80,744	57,729	70,921	47.0	22.9
농수산용	60,009	92,363	124,076	39,356	31,511	-47.5	-19.9
공업용	101,739	125,310	94,982	144,748	161,142	58.4	11.3
기 타	103,915	144,423	85,412	88,953	42,554	-59.0	-52.2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2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403천㎡로 전월대비 57.7%, 전년동월대비 1.6% 각각 증가
- 2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40.0%), 주거용(24.1%), 상업용(17.6%)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409,905	666,098	591,027	255,721	403,350	1.6	57.7
주거용	76,185	187,730	205,033	44,142	97,222	27.6	120.2
상업용	54,971	137,038	104,361	30,223	70,921	29.0	134.7
농수산용	40,282	107,409	89,869	46,027	31,511	-21.8	-31.5
공업용	123,758	150,815	122,813	79,946	16,1142	30.2	101.6
기 타	114,709	83,106	36,995	55,383	42,554	-62.9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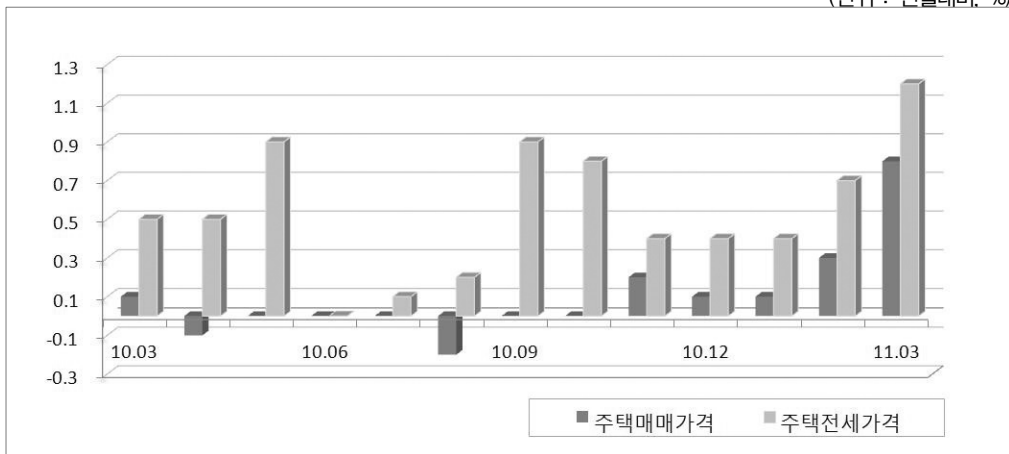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3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3%,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수요자들의 매매전환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감
 - 논산(+2.0%), 천안 서북구(0.7%) 지역이 주요 상승지역이며,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모두 상승세를 이어감
- 3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6.6%, 전월대비 1.2% 각각 상승
 - 전세 공급물량 부족과 금리인상 등으로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 지속
 - 주요 상승지역은 논산(+2.2%), 아산(+1.4%) 지역이며, 아파트 및 단독·연립주택 모두 상승세 지속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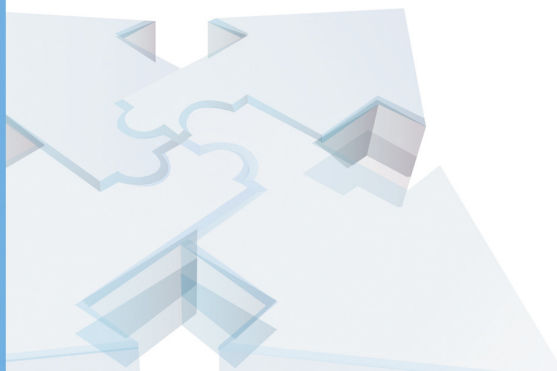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1.3.14]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승계 결정

- 충남발전연구원 정기이사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출연금 2,620백만원과 주요사업 등을 인계하는 안건을 통과

['11.3.21] 내포신도시에 게임대학교 설립유치 업무협약 체결

- 충청남도과 게임대학교설립준비위원회, 충남개발공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도청) 내 99,000㎡(약 3만평) 규모에 2015년도 개교를 목표로 게임대학교 설립 유치를 위해 상호 협의
-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단지와 대학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기대

['11.3.22] 2011 충남 풀뿌리 마을기업 26개 단체 선정

- 시군의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52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가 선정(1차년도 신규사업 21개 기업, 2차년도 계속사업 5개 기업)
- 시군별 ‘마을기업지원단’을 운영하며, 약 11억원의 사업개발비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 천안(2), 공주(2), 보령(1), 아산(1), 서산(2), 논산(3), 계룡(1), 금산(1), 연기(1), 부여(1), 서천(3), 청양(2), 홍성(2), 예산(1), 태안(1), 당진(1)

['11.3.23] 충남 신성장동력 3대 과제 정책실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충남테크노파크(종합지원관 대강당)에서 차세대 플렉시블 전자소자산업, Green IT 녹색그린산업, nD융합산업 클러스터 등 3대과제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타 지역과의 경쟁우위 선점 가능성,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추진주체 구성 및 향후 일정 등 토론
 - ※ 특강 : 장석인(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연구센터 소장), ‘정부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와 향후 방향’

['11.3.24]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협약 체결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도·시행기관과 협력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간 기계·메카, 전기·전자 분야 사업협약 체결(연수자 70명)

['11.3.25~4.3] 2011 충남 우수문화상품 특별전시판매전

- 충남 공예협동조합 주관으로 미국 LA 갤러리아백화점에서 백제 토기와 전통악기, 금속공예 등 도내 우수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40개 업체가 참가
-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38만5천 달러의 현지 판매 성과

['11.3.25]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14개 선정

-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인건비·사업개발비·경영컨설팅 등을 지원
- ※ (주)거상 펄프산업, (주)밥상, 금산도토리 일터영농조합법인, (주)사랑과 행복나눔, 청정 유통 영농조합법인, 에덴영농(주), (사)한산모시조합, 청양구기자 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회사 홍성폴무(주), 자활 영농조합법인, 내포생태교육연구소 내 생태교육 지원센터,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개목마을 영농조합법인, (사)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내 당진재활용

['11.3.25] 사회적 경제 이해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 충남발전연구원 내의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센터장 송두범) 주관으로 사회적 경제 연구회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 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식인·시민사회·사회적 경제조직 간 연대를 강조
- ※ 사회적 경제 연구회 : 충남연(박진도 원장, 연구진), 도의회 박영송 의원, 지역재단 서정민 연구실장, 충남대 정세은 교수, 홍성폴무생협 박상우 총괄팀장 등 민·관·학·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11.3.28~4.3] 2011 북미 무역사절단 운영

- 초음파 비만 치료기와 인테리어용 직물, 의약품, 미용제품, 고급 포장용 박스 등 도내 5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에서 수출 가능성 타진
- 505만 달러 수출 상담과 35만 달러 계약 체결

['11.4.6] 충남, 美다우 케미컬社와 양해각서 체결

- 세계적 화학기업인 미국 다우케미컬(회장 Jerome A. Peribere)이 한국 투자기업인 립앤하스 전자재료코리아를 통해 충남 천안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3천600만 달러 투자
- 7천189억원의 매출과 1조8천310억원의 생산효과, 6천337명의 고용효과, 2천7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485억원의 수입대체효과 등 기대

['11.4.7] 농정혁신 제5차 워크숍

-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 주최로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거버넌스 구축, 향토산업 발전방향, 지역농협 발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
- ※ 주제발표 : 구자인(진안군청),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기태(한국협종조합연구소)

['11.4.8] 충남산업디자인대전 산·학 협약 체결

- 도내 16개 기업, 9개 대학, 충남산업디자인협회가 논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디자인 지원에 관한 정보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11.4.1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 청년 실업자와 조기 퇴직자 등의 '1인 창업'을 돕기 위해 충남도경제진흥원(아산시 염치읍) 내에 개인 전용 창업실(223.2㎡)과 공동창업실(252.4㎡), 회의실 등을 설치
- 소상공인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및 비즈쿨 센터와 연계해 자금과 판로, 창업교육 등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지식, 지적재산권을 가진 개인이 대표이자 직원인 기업

['11.4.13] 소통과 화합 평화를 위한 2011 상생 다짐대회

- 대전일보 주최(주관 : 충남경제활성화협의회)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경제관련 단체, 언론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2011 유관순평화축전'의 첫 번째 기획행사로 열사의 '나라사랑', '평화정신'을 '나눔과 보듬' 정신으로 계승하여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다짐

['11.4.13] 충남상인연합회장 취임

- 청양시장 중앙광장에서 도지사, 청양군수, 도의원(청양), 청양군의회의장 및 시장 상인 200명이 참석하여 황시연(前청양시장 상인회장, 임기 3년) 회장 취임식 진행

['11.4.13] 2011 제3회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 25명이 참석하여 예산 신소재일반산업 단지 계획안에 대해 자료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

['11.4.15] 2011 수출기업육성사업 설명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출기업육성사업 선정업체 3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사업 설명 및 수출업체와 상담 실시

['11.4.15] 2011 시도 경제협의회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제1차관, 시도 부지사·부시장, 관계부처 등 32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동향 및 시사점, '11년 중앙정부 지역발전시책 및 지자체 협조사항, 지역산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등 논의

['11.4.15] 20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선정업체 협약

-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참여기업, 지도기관 등 3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CE(유럽공동체마크) 등 84개 분야 지원(15개 규격 13개 업체)

['11.4.18]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 충청남도 주관으로 도청 소회의실에서 대전고용청, 대전충남중기청 및 도내 대학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학생 지역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건의사항 등 토론 진행

['11.4.19]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 취임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양승조·김호연 국회의원, 이재운 대전지방노동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정근서(재선, 임기3년) 의장 취임식 진행

['11.4.19] 취약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발대식

- 한국가스안전공사 천안북부지사 주관으로 당진 기지시리박물관에서 시군 공무원 및 관련단체·시공사 등 50명이 참석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발대식 개최('11년 6,682세대 약 11억원)

['11.4.20~4.25] 2011 충남기능경기대회 개최

- 충청남도기능경기위원회(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 주관으로 천안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35개 직종 393명이 참여
- ※ 개최식 : 2011. 4. 20(수) 10:00 /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 시상식 : 2011. 4. 25(월) 14:30~16:00 / 천안교육지원청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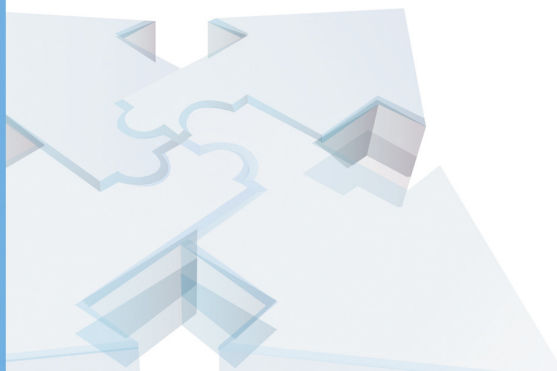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는 아날로그 경쟁력
 - 東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
 - '패스트 패션' 에서 배우는 逆발상의 지혜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사이버 거래의 경쟁기반 현황과 발전과제
 - 스마트 혁명이 가져온 충격과 우리의 대응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모바일 혁명이 아프리카를 바꾼다
 - 사업리더,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 위안화, 글로벌 통화의 길 아직 멀다
 - 상반된 트렌드의 공존시대(전자산업을 통해 본 해법 찾기)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 **중소기업연구원 : <http://www.kosbi.re.kr>**
 -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패자부활센터 설립방안
 - 낙후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 지역고용 노사정파트너십 현황과 발전방안
 -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동반성장 관련 애로와 개선과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 동일본 대지진이 소매업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국내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황조사
 - 기업의 소셜 커머스 활용실태 및 향후전망 조사
 - 고물가 시대 소비자 장바구니 동향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8,447	9,511	10,493	9,309	8,329
GDP 성장률 ²⁾	%	16.9	12.6	10.3	△11.3	△10.5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8,439	9,525	10,512	9,379	8,372
GNI 성장률 ²⁾	%	16.5	12.9	10.4	△10.8	△10.7
1인당 GNI ¹⁾	달러	17,531	19,722	21,695	19,296	17,175
경제성장률	%	4.0	5.2	5.1	3.1	△0.9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7	2.6
광공업		27.8	27.4	27.5	28.1	28.0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3	1.8
건설업		7.6	7.5	7.4	7.0	6.9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8	60.7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5	74.6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업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5	30.0
민간비중	%	22.5	20.8	20.2	21.2	23.3
정부비중		9.8	10.0	10.6	9.3	6.7
총자본형성	십억원	256,866	268,216	277,729	277,773	236,001
최종소비지출	%	67.7	69.0	69.1	70.0	70.3
민간비중	%	53.8	54.5	54.4	54.7	54.3
정부비중		13.9	14.5	14.7	15.3	16.0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 경제지표 (2011.4.1기준)

금리

구 분	'09말	'10말	'11.1말	3.30	3.31	4.1	전일비	'10말비
콜금리(1일),%	2.01	2.49	2.75	2.98	2.98	2.99	0.01	0.50
CD(91일),%	2.86	2.80	3.05	3.39	3.39	3.39	0.00	0.59
국고채(3년),%	4.41	3.38	3.98	3.74	3.73	3.67	△0.06	0.29
국고채(5년),%	4.92	4.08	4.40	4.12	4.11	4.06	△0.05	△0.02
회사채(3년, AA-),%	5.53	4.27	4.76	4.52	4.51	4.47	△0.04	0.20

주가

구 분	'09말	'10말	'11.1말	3.30	3.31	4.1	전일비	'10말비
KOSPI지수	1,682.77	2,051.00	2,069.73	2,091.38	2,106.70	2,121.01	0.68%	3.41%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42,856	53,969	73,470	83,692	84,063	76,534	△7,529	22,565
KOSDAQ지수	513.57	510.69	521.38	520.21	525.42	532.06	1.26%	4.18%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01,051	39,023	6,851	2,187	△9,632	7,811	17,443	

※ 기간중 : '09말('09.1.1~12.31), '10말('10.1.1~12.31), '11.1말('11.1.1~1.31), 4.1('11.4.1~4.1).

환율

구 분	'09말	'10말	'11.1말	3.30	3.31	4.1	전일비	'10말비
₩/US\$ (종가)	1,164.50	1,134.80	1,121.50	1,104.20	1,096.70	1,091.10	+0.51	+4.01
선물환(NDF, 1개월물)	1,165.90	1,137.00	1,123.60	1,106.30	1,098.80	1,093.10	+0.52	+4.02
₩/¥100	1,264.52	1,393.59	1,367.85	1,331.48	1,325.64	1,306.08	+1.50	+6.70
¥/US\$	92.09	81.43	81.99	82.93	82.73	83.54	△0.97	△2.53
US\$/EUR	1.4325	1.3233	1.3613	1.4090	1.4149	1.4174	+0.18	+7.11
CNY/US\$	6.8279	6.6100	6.5907	6.5578	6.5524	6.5457	+0.10	+0.98

※ '10년 평균 환율 : (₩/US\$) 1,156.3원, (₩/¥100) 1,320.6원

※ '11년 평균 환율('11.1.1~현재) : (₩/US\$) 1,119.3원, (₩/¥100) 1,359.3원

※ 전일비(%) 및 '10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9말	'10말	'11.1말	3.30	3.31	4.1	전일비	'10말비
LIBOR(Dollar, 3월, %)	0.25	0.30	0.30	0.30	0.30	0.30	0.00	0.00
T/NOTE(10년, %)	3.83	3.29	3.38	3.44	3.47	3.45	0.03	0.16
DOW	10,428	11,578	11,892	12,351	12,320	12,377	△0.25	6.90%
NIKKEI	10,546	9,937	10,238	9,709	9,755	9,708	△0.48	△5.09%
SANGHAI COMP	3,277	2,808	2,791	2,951	2,928	2,967	1.34	5.67%
외평채가산금리 (13년물, bp)	59	175	172	151	151	151	0	△24
CDS (5년, bp)	86	95	103	99	99	97	0	2
CRS (1년, %)	2.25	1.10	2.55	2.51	2.50	2.48	△0.02	1.05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9말	'10말	'11.1말	3.30	3.31	4.1	전일비	'10말비
DUBAI (\$/bbl)	78.04	88.80	94.57	108.72	109.40	111.08	1.68	22.28
WTI 선물 (\$/bbl)	94.75	94.84	101.01	104.27	106.72	107.94	1.22	13.10
원당(센트/파운드)	26.95	32.12	34.00	27.21	27.11	27.44	1.22%	△14.57%
밀 (센트/부셸)	542	794	841	727	763	760	△0.49%	△4.38%
대두 (센트/부셸)	1,049	1,403	1,413	1,372	1,410	1,394	△1.17%	△0.66%
옥수수 (센트/부셸)	415	629	660	663	693	736	6.17%	17.01%
동 (\$/톤)	7,377	9,665	9,680	9,535	9,409	9,352	△0.60%	△3.24%
알루미늄 (\$/톤)	2,242	2,468	2,495	2,632	2,632	2,621	△0.42%	6.20%

※ '10년 평균 유가 : (Dubai) 78.13\$, (WTI) 79.61\$

※ '11년 평균 유가('11.1.1~현재) : (Dubai) 101.19\$, (WTI) 95.69\$.

자료: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7,600
전국대비 구성비 ²⁾	%	5.46	5.85	5.96	6.21	6.73
GRDP 성장률 ²⁾	%	9.6	12.6	7.6	7.0	9.2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83	3,370
산업구조	—					
농림어업	%	8.2	7.6	6.7	6.3	6.7
광공업		43.4	44.7	45.9	47.0	53.4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2.5	4.8
건설업		9.6	9.3	8.7	9.3	7.3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9	27.8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	23.5	23.6	21.9	19.5	18.8
광공업		15.8	15.5	17.0	17.4	17.1
건설업		6.1	5.8	6.6	5.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4.6	55.1	54.5	57.3	58.3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¹⁾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8 02	120.7	0.7	6.7	6.9	102.5	0.4
03	121.5	0.7	6.9	7.0	102.9	0.3
04	121.4	-0.1	5.6	6.2	102.5	-0.4
05	121.2	-0.2	4.3	5.3	101.9	-0.5
06	121.0	-0.1	3.3	4.5	101.5	-0.4
07	121.3	0.3	3.1	4.1	101.5	-0.0
08	121.7	0.3	3.0	3.9	101.5	0.0
09	121.9	0.1	2.6	3.4	101.4	-0.1
10	122.4	0.4	2.7	3.3	101.5	0.1
11	122.2	-0.1	2.0	2.8	101.1	-0.4
12	121.0	-1.0	-0.3	1.4	99.8	-1.3
2009 01	119.2	-1.5	-3.3	-0.5	98.0	-1.8
02	117.6	-1.3	-5.5	-2.1	96.4	-1.5
03	116.5	-1.0	-6.9	-3.4	95.2	-1.3
04	116.1	-0.3	-6.9	-4.0	94.6	-0.6
05	116.5	0.4	-5.6	-3.9	94.6	0.1
06	118.2	1.4	-2.5	-2.6	95.7	1.0
07	119.7	1.3	0.3	-1.3	96.6	0.9
08	120.8	0.9	2.1	-0.2	97.2	0.5
09	122.3	1.2	4.6	1.4	98.0	0.9
10	123.6	1.1	6.7	2.9	98.8	0.7
11	124.8	1.0	8.5	4.2	99.4	0.6
12	125.6	0.6	9.3	5.1	99.6	0.3
2010 01	126.5	0.7	10.2	6.0	100.0	0.4
02	127.5	0.8	10.7	6.9	100.4	0.4
03	128.4	0.6	10.7	7.5	100.7	0.3
04	128.9	0.4	9.9	7.9	100.7	0.0
05	129.6	0.5	9.1	8.3	100.8	0.1
06	130.4	0.7	8.7	8.6	101.1	0.3
07	131.2	0.6	8.3	8.7	101.4	0.2
08	131.8	0.4	7.6	8.4	101.4	0.0
09	132.1	0.2	6.6	7.8	101.2	-0.2
10	131.9	-0.1	5.2	6.8	100.7	-0.5
11	131.9	-0.0	4.1	5.8	100.1	-0.4
12	132.8	0.7	4.6	5.7	100.4	0.3
2011 01	134.8	1.5	6.5	6.4	101.5	1.1
02	135.8	0.7	6.9	6.4	101.8	0.4

시장경기동향

(단위 : 백만원, 경성판매액, %)

구 분	자금사정		업황		매출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8	52,9	72,9	57,6	85,8	58,8	84,3
2009	63,6	77,6	68,0	79,1	60,5	78,0
2010	69,7	87,5	70,3	94,4	68,4	94,4
2009 4/4	72,2	85,3	79,8	89,3	71,0	86,9
2010 1/4	64,3	80,2	61,1	94,6	58,3	93,0
2/4	67,0	87,4	66,6	92,6	61,9	92,1
3/4	76,9	89,3	80,6	94,8	79,8	96,1
4/4	70,6	93,3	73,0	95,6	73,8	96,3
2009 03	64,3	84,5	73,8	86,9	48,8	88,1
04	59,5	85,7	70,2	84,5	75,0	76,2
05	53,6	79,8	60,7	81,0	50,0	81,0
06	56,0	70,2	57,1	65,5	50,0	64,3
07	73,8	75,0	69,0	78,6	65,5	69,0
08	67,9	77,4	79,8	78,6	61,9	83,3
09	71,4	84,5	77,4	90,5	77,4	92,9
10	69,0	88,1	76,2	95,2	69,0	86,9
11	82,1	88,1	91,7	86,9	82,1	91,7
12	65,5	79,8	71,4	85,7	61,9	82,1
2010 01	57,1	76,2	52,4	78,6	45,2	76,2
02	66,7	76,9	64,3	97,5	70,2	95,1
03	69,0	87,5	66,7	107,7	59,5	107,7
04	71,4	96,2	71,4	105,1	70,2	105,3
05	70,2	87,2	69,0	94,0	58,3	96,1
06	59,5	78,9	59,5	78,8	57,1	75,0
07	70,0	82,9	66,7	73,8	60,7	76,2
08	73,8	82,5	77,4	85,0	75,0	86,5
09	86,9	102,4	97,6	125,6	103,6	125,6
10	69,0	103,8	66,7	114,3	67,9	121,3
11	85,7	95,2	94,0	98,8	96,4	100,0
12	57,1	80,8	58,3	73,8	57,1	67,5
2011 01	53,6	79,8	39,3	79,3	36,9	86,3
02	66,7	89,3	53,6	81,0	48,8	76,2
03	72,6	102,4	71,4	115,5	75,0	109,5
04	-	100,0	-	109,5	-	120,2

자료 : 월간 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09 4/4	266,582	6.9	7.5	180,491	5.0	-2.5
2010 1/4	270,000	10.2	1.3	195,812	9.9	8.5
2/4	254,505	5.6	-5.7	188,116	9.1	-3.9
3/4	277,463	11.9	9.0	218,408	17.9	16.1
4/4	293,129	10.0	5.6	194,620	7.8	-10.9
2008 12	90,086	25.9	4.7	67,434	32.5	11.5
2009 02	71,626	-4.3	-20.5	51,086	-6.7	-24.2
03	83,314	10.0	16.3	59,717	13.3	16.9
04	78,135	9.4	-6.2	54,814	11.0	-8.2
05	85,831	11.5	9.8	61,476	15.2	12.2
06	77,042	7.3	-10.2	56,196	9.2	-8.6
07	81,504	6.3	5.8	61,952	7.4	10.2
08	81,952	6.6	0.5	63,234	6.8	2.1
09	84,601	3.5	3.2	60,001	1.3	-5.1
10	87,796	11.4	3.8	58,930	9.1	-1.8
11	85,471	1.2	-2.6	57,330	-0.1	-2.7
12	93,315	8.5	9.2	64,231	6.2	12.0
2010 01	88,900	-1.3	-4.7	63,066	-6.5	-1.8
02	93,492	30.5	5.2	70,492	38.0	11.8
03	87,608	5.2	-6.3	62,254	4.2	-11.7
04	81,181	3.9	-7.3	58,341	6.4	-6.3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8 01	740,455	33,737	2,726	502,260	50,145	185,650	2,400
02	744,029	34,234	3,574	505,481	50,288	185,842	2,418
03	747,224	34,346	3,195	508,335	50,356	186,116	2,417
04	750,043	34,105	2,819	510,904	50,417	186,302	2,420
05	752,196	33,661	2,153	513,034	50,394	186,335	2,433
06	755,197	33,578	3,001	515,739	50,472	186,544	2,442
07	756,214	32,444	1,017	516,862	50,459	186,443	2,450
08	757,287	-	1,073	517,914	50,474	186,449	2,450
09	759,840	30,640	2,553	520,191	50,459	186,734	2,456
10	761,629	-	1,789	521,755	50,515	186,892	2,467
11	762,287	29,393	658	522,574	50,504	186,751	2,458
12	765,469	27,740	3,182	525,564	50,562	186,879	2,464
2009 03	769,205	25,176	1,974	529,048	50,529	187,188	2,440
04	771,889	24,665	2,684	531,278	50,660	187,512	2,439
05	774,965	24,922	3,076	533,905	50,693	187,921	2,446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10	116.7	3.0	118.7	3.4	126.8	22.5	116.8	2.9	116.3	3.5	116.6	3.0
2010 1/4	115.1	2.9	117.0	3.5	111.2	6.1	115.2	2.8	114.7	3.1	115.1	2.9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4/4	118.2	3.7	120.1	3.9	142.3	43.6	118.3	3.5	117.7	3.9	118.2	3.9
2011 1/4	120.3	4.5	122.6	4.8	142.2	27.9	120.3	4.4	120.1	4.7	120.6	4.8
2009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08	117.0	2.6	118.8	2.7	127.3	23.4	117.1	2.5	116.6	3.2	116.9	2.6
09	118.2	3.6	120.4	4.0	150.7	47.9	118.3	3.5	118.0	4.3	117.9	3.4
10	118.4	4.0	120.7	4.6	150.6	50.0	118.4	3.8	118.1	4.6	118.4	4.2
11	117.7	3.2	119.3	3.4	136.0	42.0	117.8	3.2	117.2	3.4	117.7	3.4
12	118.5	3.7	120.3	3.8	140.2	38.8	118.6	3.5	117.9	3.8	118.4	3.9
2011 01	119.5	4.2	121.6	4.5	140.9	33.2	119.5	4.1	119.2	4.4	119.6	4.4
02	120.6	4.8	123.1	5.2	143.0	29.4	120.6	4.8	120.5	5.1	120.9	5.1
03	120.9	4.7	123.1	4.8	142.8	21.6	120.8	4.6	120.6	4.5	121.3	4.9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09 4/4	11,825	36.4	7.1	5,558	-5.4	10.4	6,267
2010 1/4	11,714	61.1	-0.9	5,746	36.7	3.4	5,968
2/4	13,434	44.7	14.7	6,204	43.2	8.0	7,230
3/4	14,633	32.5	8.9	6,360	26.4	2.5	8,273
4/4	14,273	20.7	-2.5	6,583	18.4	3.5	7,690
2009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4	47.8	-8.8	1,847
02	3,650	53.1	-0.3	1,901	26.3	4.8	1,749
03	4,402	51.4	20.6	2,041	38.7	7.4	2,361
04	4,358	44.6	-1.0	1,913	39.3	-6.3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2	40.9	2.4	2,363	41.7	22.6	2,229
07	4,898	41.0	6.7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7	2,071	25.2	0.3	2,863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0	29.1	2.4	2,535	39.9	5.4	2,195
02	4,215	15.5	-10.9	2,210	16.9	0.0	2,005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10	1,613	1,003	974	29	610	2.9	60.4
2009 4/4	1,598	992	965	27	606	2.8	60.4
2010 1/4	1,605	941	906	35	663	3.7	56.5
2/4	1,610	1,028	1,003	24	582	2.4	62.3
3/4	1,616	1,036	1,006	29	581	2.8	62.3
4/4	1,623	1,007	981	26	615	2.6	60.4
2009 02	1,577	923	895	27	655	3.0	56.8
03	1,580	959	926	33	621	3.5	58.6
04	1,582	1,008	978	29	575	2.9	61.8
05	1,585	1,020	986	34	565	3.3	62.2
06	1,588	1,037	1,001	36	550	3.5	63.1
07	1,590	1,012	980	32	578	3.2	61.6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02	1,605	936	896	40	669	4.3	55.8
03	1,606	957	933	24	650	2.5	58.1
04	1,608	1,015	989	25	593	2.5	61.5
05	1,610	1,031	1,006	25	579	2.5	62.5
06	1,612	1,037	1,015	22	575	2.1	63.0
07	1,614	1,037	1,007	30	578	2.9	62.4
08	1,616	1,032	1,006	25	585	2.4	62.3
09	1,618	1,039	1,006	33	580	3.2	62.1
10	1,620	1,033	1,005	28	587	2.7	62.0
11	1,622	1,020	995	25	602	2.4	61.3
12	1,625	968	942	26	657	2.6	58.0
2011 01	1,627	923	899	24	705	2.6	55.2
02	1,632	1,012	982	30	620	3.0	60.2

자료 : 충청지역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08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37	381,542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19	0.33	0.20	0.02	0.05
2009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10 1/4	0.16	0.20	0.27	0.23	0.00	0.05
2/4	0.18	0.20	0.35	0.21	0.04	0.07
3/4	0.20	0.25	0.54	0.02	0.12	0.03
4/4	0.14	0.14	0.18	0.41	0.04	0.06
2009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10	210,392	-22.1	6,636,749	-7.9	6,347,493	19.7	141,946	-25.3
2009 4/4	57,245	32.1	1,567,823	-42.2	1,881,961	69.4	42,081	-10.2
2010 1/4	45,610	-40.1	1,399,401	-14.0	1,435,241	52.9	40,044	-22.3
2/4	49,753	-35.7	2,096,181	26.4	1,903,299	45.3	38,107	-25.6
3/4	41,451	-30.3	1,447,506	-17.2	1,287,318	9.9	34,666	-23.2
4/4	73,578	28.5	1,732,684	10.5	1,721,905	-8.5	29,129	-30.8
2009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672,202	-51.8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09	9,891	-44.4	379,786	-28.2	393,149	3.2	10,851	-6.4
10	19,172	23.3	439,713	-8.9	464,780	-3.0	10,285	-5.2
11	21,637	18.6	812,740	64.2	666,098	34.5	9,824	-4.5
12	32,769	39.7	480,231	-28.6	591,027	24.4	9,020	-8.2
2011 01	14,265	-3.5	414,632	3.7	255,721	-2.1	8,750	-37.3
02	12,164	-28.1	403,350	-12.7	403,350	1.6	8,477	-35.7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8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03	100.2	0.9	0.1	100.2	99.8	101.5	101.1	2.0	0.5	100.9	101.0	103.5
04	100.1	0.8	-0.1	100.3	99.2	101.9	101.6	2.8	0.5	101.2	101.9	103.7
05	100.1	1.0	0.0	100.4	99.2	102.2	102.5	3.6	0.9	101.7	103.4	104.4
06	100.1	1.1	0.0	100.4	99.2	102.4	102.5	3.7	0.0	102.2	102.9	104.1
07	100.1	1.1	0.0	100.5	99.2	102.4	102.6	3.6	0.1	102.7	102.9	104.1
08	100.0	1.0	-0.2	100.6	98.7	102.4	102.8	3.7	0.2	103.3	102.9	104.2
09	100.0	0.7	0.0	100.7	98.7	102.6	103.7	4.1	0.9	103.8	104.6	104.9
10	100.0	0.3	0.0	100.8	98.7	102.6	104.6	4.6	0.8	104.4	105.8	105.9
11	100.2	0.3	0.2	101.1	98.7	103.2	105.0	4.7	0.4	105.5	105.4	106.5
12	100.3	0.4	0.1	101.3	98.7	103.2	105.4	5.1	0.4	106.3	105.5	106.5
2011 01	100.5	0.5	0.1	101.6	98.7	103.2	105.8	5.4	0.4	107.0	105.6	106.5
02	100.8	0.7	0.3	102.1	98.7	103.2	106.6	5.9	0.7	108.1	106.0	106.6
03	101.5	1.3	0.8	103.0	99.3	103.4	107.8	6.6	1.2	109.8	106.8	106.8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답 당 기 관	답 당 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2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8 02	756,8	0,8	150,7	1,6	118,8	1,7
03	759,5	0,4	152,7	1,3	122,7	3,3
04	759,3	-0,0	153,4	0,4	124,3	1,4
05	758,5	-0,1	155,3	1,3	125,0	0,5
06	762,0	0,5	157,1	1,1	125,2	0,2
07	764,0	0,3	157,3	0,1	125,8	0,5
08	768,0	0,5	158,2	0,5	126,7	0,7
09	766,3	-0,2	159,0	0,5	126,9	0,1
10	770,4	0,5	160,3	0,8	128,0	0,9
11	770,9	0,1	157,6	-1,7	131,4	2,6
12	770,6	-0,0	150,7	-4,4	131,3	-0,0
2009 01	761,3	-1,2	146,4	-2,9	131,9	0,4
02	753,9	-1,0	144,1	-1,5	125,8	-4,7
03	742,4	-1,5	144,1	-0,0	126,4	0,5
04	741,6	-0,1	145,3	0,8	125,2	-1,0
05	742,8	0,2	150,5	3,6	129,5	3,5
06	747,2	0,6	161,1	7,0	130,1	0,4
07	744,3	-0,4	171,9	6,7	131,1	0,8
08	744,5	0,0	181,0	5,3	130,9	-0,2
09	750,5	0,8	189,1	4,5	131,3	0,3
10	755,2	0,6	194,8	3,0	133,1	1,4
11	756,0	0,1	198,7	2,0	135,7	2,0
12	750,3	-0,8	202,3	1,9	138,4	2,0
2010 01	750,1	-0,0	205,0	1,3	139,4	0,7
02	752,0	0,3	206,7	0,8	141,1	1,2
03	756,6	0,6	208,4	0,8	140,0	-0,8
04	760,4	0,5	209,8	0,6	137,8	-1,6
05	762,6	0,3	212,4	1,3	135,4	-1,7
06	764,0	0,2	215,1	1,2	135,4	-0,0
07	765,2	0,2	216,8	0,8	137,9	1,9
08	764,8	-0,0	220,0	1,5	137,4	-0,4
09	762,1	-0,4	222,0	0,9	137,2	-0,2
10	755,6	-0,9	225,1	1,4	133,7	-2,5
11	753,5	-0,3	227,0	0,8	130,2	-2,6
12	755,2	0,2	226,8	-0,1	143,9	10,5
2011 01	760,2	0,7	228,1	0,6	164,4	14,2
02	767,9	1,0	228,7	0,2	174,6	6,2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8 02	2,462,481.2	1.0	4,077,449.7	-0.6	1,913,214.4	0.9
03	2,489,219.5	1.1	4,015,711.6	-1.5	1,948,869.1	1.9
04	2,495,922.5	0.3	3,918,190.0	-2.4	1,921,273.0	-1.4
05	2,512,687.9	0.7	3,779,208.5	-3.5	1,856,151.7	-3.4
06	2,525,409.2	0.5	3,597,446.0	-4.8	1,798,024.1	-3.1
07	2,544,271.8	0.7	3,534,855.4	-1.7	1,832,928.0	1.9
08	2,557,306.4	0.5	3,523,067.1	-0.3	1,832,424.7	-0.0
09	2,563,006.5	0.2	3,548,282.2	0.7	1,853,122.2	1.1
10	2,592,296.4	1.1	3,555,437.1	0.2	1,827,589.8	-1.4
11	2,586,037.0	-0.2	3,473,114.5	-2.3	1,841,902.1	0.8
12	2,553,407.0	-1.3	3,329,302.3	-4.1	1,827,831.6	-0.8
2009 01	2,537,137.4	-0.6	3,221,711.2	-3.2	1,688,079.5	-7.6
02	2,519,331.4	-0.7	3,104,932.5	-3.6	1,637,244.5	-3.0
03	2,505,141.8	-0.6	3,067,990.9	-1.2	1,547,558.1	-5.5
04	2,496,701.1	-0.3	3,077,398.4	0.3	1,480,643.4	-4.3
05	2,503,787.1	0.3	3,174,479.2	3.2	1,382,016.5	-6.7
06	2,549,210.5	1.8	3,366,406.4	6.0	1,356,663.9	-1.8
07	2,580,218.7	1.2	3,540,948.7	5.2	1,393,389.0	2.7
08	2,614,830.8	1.3	3,637,950.0	2.7	1,388,263.4	-0.4
09	2,656,591.7	1.6	3,713,543.7	2.1	1,414,917.2	1.9
10	2,696,393.7	1.5	3,788,025.5	2.0	1,445,091.1	2.1
11	2,749,918.8	2.0	3,888,837.2	2.7	1,485,408.1	2.8
12	2,803,504.0	1.9	4,012,875.2	3.2	1,507,421.8	1.5
2010 01	2,876,230.9	2.6	4,123,066.3	2.7	1,521,423.1	0.9
02	2,942,057.0	2.3	4,251,081.9	3.1	1,541,219.6	1.3
03	3,002,336.8	2.0	4,350,304.5	2.3	1,545,496.1	0.3
04	3,053,350.5	1.7	4,444,675.7	2.2	1,538,515.2	-0.5
05	3,102,286.7	1.6	4,559,333.1	2.6	1,546,980.5	0.6
06	3,142,582.9	1.3	4,646,511.6	1.9	1,590,161.8	2.8
07	3,165,124.5	0.7	4,752,875.8	2.3	1,620,703.0	1.9
08	3,197,543.0	1.0	4,825,096.9	1.5	1,631,801.1	0.7
09	3,230,304.1	1.0	4,870,082.1	0.9	1,646,806.1	0.9
10	3,262,241.5	1.0	4,884,486.6	0.3	1,654,152.0	0.4
11	3,288,050.9	0.8	4,859,316.4	-0.5	1,665,738.8	0.7
12	3,326,737.3	1.2	4,849,763.8	-0.2	1,637,603.9	-1.7
2011 01	3,378,911.3	1.6	4,895,936.9	1.0	1,657,595.1	1.2
02	3,410,428.5	0.9	4,882,870.7	-0.3	1,637,773.0	-1.2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변수명	자 료 명	단 위	자료기간	작성기관	자료출처
CN1	비농가취업자수	천명	90.1월~	통계청 사회통계과	KOSIS
CN2	산업생산지수	2005=100	90.1월~	통계청 산업동향과	KOSIS
CN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005=100	97.1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KOSIS
CN4	전력소비량	1,000kwh	90.1월~	한국전력 충남지사	한국전력공사
CN5	수출액/수출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CN6	수입액/수입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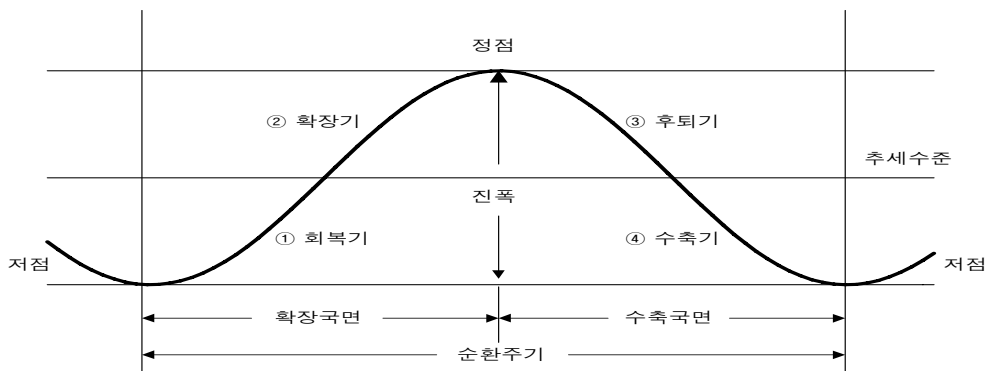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경기 순환과정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률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예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률(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㉑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㉒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 (구성지표), $t = 2, 3, \dots, T$ (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률($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 (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률($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률(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률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률(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1년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계획

- **대 상**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선정 주택
- **규 모** : 1,400백만원
- **신 청** : 2011. 3. 28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사항** : 태양광 및 소형풍력 발전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전략산업과, 시군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
(042-606-5695)

2011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선정 기업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기업체 홍보 카탈로그, CI, BI 등
- **지원규모** : 100백만원(30업체 내외)
- **신 청** : 2011. 4. 11 ~ 4. 25, 한서대 제품표면디자인센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한서대로 문의(041-660-1766)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규모** : 100억원(은행협력자금)
- **융자조건** : 5억원 이내 3% 대출금리(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신 청** : 2011. 3. 23 ~ 12. 15(단, 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041-539-4505)

2011년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참가 희망업체 모집

- **참가신청** : 2011. 3. 25 ~ 4. 22 ※ **운영** : 2011. 10. 18 ~ 10. 30
- **대상지역** : 상파울루(브라질), 토론토(캐나다), 디트로이트(미국)
- **모집규모** : 자동차 부품회사 7개사 내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297)

에너지 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

- **신 청** : 2011. 4. 1 ~ 5. 31,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
 - **신청대상** : 일반 국민(가구) 및 공동주택 단지(계량에너지 : 전기·가스·난방)
 - 개별신청 : 개별가구 및 에너지 저소비 가구
 - 공동신청 : 공동주택 단지(300가구 이상)
 - **지원사항** : 우수가구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및 에너지 절약 콜센터로 문의(1577-4302)

2011년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참가 희망업체 모집

- **참가신청** : 2011. 3. 25 ~ 4. 22 ※ 운영 : 2011. 10. 18 ~ 10. 30
 - **대상지역** : 상파울루(브라질), 토론토(캐나다), 디트로이트(미국)
 - **모집규모** : 자동차 부품회사 7개사 내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297)

2011년 남미 무역사절단 참가 희망업체 모집

- **참가신청** : 2011. 4. 18 ~ 5. 27(금) ※ 운영 : 2011. 11. 27 ~ 12. 8
 - **대상지역** : 콜롬비아(보고타), 멕시코(멕시코시티), 칠레(산티아고)
 - **모집규모** : 종합품목 7개사 내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297)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 **참가신청** : 2011. 4. 14 ~ 4. 22 ※ 운영 : 2011. 6. 15 ~ 6. 19, 하얼빈 국제회의센터
 - **모집규모** : 종합품목 5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부스 임차, 통역, 편도 운송료, 1인 항공료(40%)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298)

SNS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정보 제공 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 대 상 : 충청남도 소재의 중소기업(CEO, 수출실무 담당자)
- 홍보수단 : SNS(트위터, 페이스북), SMS, e-mail
- 참여방법
 - SMS, e-mail : 도 담당자에게 전화(구두 신청) 문의 등록
 - SNS : 트위터, 페이스북 회원가입 후 충청남도 담당자와 의사소통 가능

담당자 및 연락처	연락처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
박재호 주무관	042-251-2323	@nihao1338	hoback@korea.kr
윤인규 주무관	042-251-2298	@intoyoon	intoyoon@korea.kr
오의택 주무관	042-251-2297	@taekc	ryanoh798@korea.kr
김정선 주무관	042-251-2173	@Jeongseon920	kjseon2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173)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1월호

2010년 충청남도 산업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충청남도 권희태

2010년 경제전망

산업연구원 강두용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청남도 조한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0. 2월호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한남대학교 정상은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충청남도 이재관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2010. 3월호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대전지방노동청 고복현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0. 4월호

3D 홀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가온 미래'

디지털타임즈 이근형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경희대학교 장진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전기차

충남테크노파크 이덕규

2010. 5월호

문화산업, 감성형 융합콘텐츠 시대로의 이행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설기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무령왕의 재발견

공주대학교 정재운

백제금동대향로의 부활 "서기행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동연

2010. 6월호

충남 산업의 고품질 유희유, 디자인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브랜드 전략방안

그린나라 조용진

국가 디자인 정책과 주요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영선

2010. 7월호

충남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육성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1년 365일, 축제 한마당

건양대학교 지진호

충남 생태관광의 지향점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2010. 8월호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정상은

최근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0. 9월호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 김양중 · 송두범
DTI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0월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미 · 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공주대학교 남수중

2010. 11월호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4월호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윤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주최 충청남도 · 금산군 주관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Ginseng,
Root of Life

2011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1.09.02
— 10.03

충남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

“고객 사가 원하는 1위 기업달성

IT 장비 제조 선두 기업

ADM ! 글로벌 리더!



저희 ADM은 기술 중시의 경영을 통해 핵심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역량을 집중할것이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수 있는 신수종 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에이디엠테크놀로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66-30
TEL.041-554-4685 FAX.041-554-4687

위 기업은 2010년 충청남도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